

동물

우리나라 백두대간 산줄기는 한반도 산체의 중심을 형성하고, 이 어진 산줄기는 삼면의 바다로 뻗으며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섬진강의 큰 물줄기를 형성한다. 인간의 정주 공간인 도시와 마을, 생산 공간인 농경지, 갯벌은 독특한 동물상을 갖는다. 또한 비무장지대, 아고산대, 도서 지역은 이동성 동물의 중요한 중간 기착지이다. 우리나라에 서식하는 생물종은 대략 10만 종 정도로 추정되며, 현재까지 기록된 생물종은 총 52,628종이다. 이 중 동물계에 속하는 종은 30,675종으로 전체 기록종의 58.3%에 이른다. 분류군별로 나누면 척추동물 2,009종, 미사동물 128종, 무척추동물 28,538종이다. 우리나라는 동북아시아에 위치한 백두산 고산 지대와 두 개의 큰 강을 기준으로 대륙으로부터 구분되어 남북으로 길게 이어진 한반도 남쪽에 자리잡고 있으며, 담수어류 및 곤충의 고유종 비율이 다른 분류군에 비해 높게 나타난다. 고유종이란 지리적으로 한정된 지역이나 국가에만 분포하여 서식하는 생물 분류군을 가리키며, 전 세계에서 그 지역에만 서식하는 종을 말한다. 자생하는 것으로 밝혀진 생물종 중에서 약 4.3%가 한반도 고유종이며, 고등 동물로는 포유류 1종, 조류 1종, 양서류 6종 그리고 어류 66종이 고유종으로 알려져 있다.

동물종 현황

구분		종 수(종)	종수 비율(%)
동물계	척추동물류	포유류	125 0.41
		조류	537 1.75
		파충류	32 0.10
		양서류	21 0.07
		어류	1,294 4.22
	미사동물류	128 0.42	
	무척추동물류(곤충류 제외)	9,900 32.27	
	곤충류	18,638 60.76	

한경위(2019)

해양 생물의 경우 영해와 배타적 경제 수역 면적을 합한 총면적(약 43,8만 km²) 대비 단위 면적당 생물종(종 수/1,000km²)이 32종으로 생물 다양성이 높은 편이고, 연안 습지의 생물종은 717종으로 나타난다. 한반도에 서식하는 고유 동물은 척추동물 74종, 미사동물 1종, 무척추동물 1,716종으로 자생 동물 중 5.84%를 차지한다. 멸종위기 야생생물(I, II 급) 267종 중 동물종은 176종이다. 국제적 멸종위기종(I, II, III급) 34,473종 중 동물종은 4,563종이고, 먹는 것이 금지되는 야생동물은 31종, 포획·채취 등이 금지되는 야생동물은 479종, 인공 증식을 위한 포획·채취 허가대상 야생동물은 12종, 수출·수입 등 허가대상 야생동물은 568종이다. 한편 해양 생물의 경우 해양이나 연안에 서식하는 멸종위기종과 국내 고유종, 학술적·경제적으로 가치가 높은 80종을 해양보호생물로 지정하고 있으며, 이 중 동물은 해양 포유동물 16종을 포함해 73종이다. 멸종위기 야생동물 복원 사업은 반달가슴곰, 산양, 어우를 비롯한 황새, 따오기, 해마, 바다거북 등을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멸종위기 야생동물 보전 및 증식을 위한 서식지외보전기관은 환경부 13개소, 해양수산부 15개소가 지정되어 있다. 해양동물전문기구·치료기관은 10곳이다.

주요 관리 대상 동물종 수

구분	국외 반출 승인 대상 동물종 수(종)	포획 금지 야생 동물종 수(종)
척추 동물류	포유류	57
	조류	396
	파충류	16
	양서류	10
	어류	82
무척추 동물류	곤충류	0
	거미류	0
	연체동물류	0
	기타 무척추동물류	0

한경위(2019)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대형 포유류 및 상위 포식자의 감소, 즉 멧돼지나 고라니의 개체 수를 조절해 주는 멧금류의 멸종 등에 따라 소형, 중형 포유류가 증가하여 농작물과 경작지에 피해를 끼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이외에도 일부 버려진 반려동물의 야생화로 인하여 동물 생태계에 영향을 주고 있다. 이처럼 유입 생물로 인한 생태계 교란 및 야생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과 재산 피해 예방 등을 위해 생태계 교란 동물, 유해야생동물, 야생화된 동물 등을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야생 동물에 대한 주요 위협 요인은 매년 만 개 전후로 수가되는 불법 염구를 포함해서 단속 실적 수백 건의 밀렵과 밀거래, 로드킬, 2019년 기준 연간 1,960건의 고래 혼획 등이다.

멸종위기 야생동물 I, II급

멸종위기 야생동물은 자연적 혹은 인위적인 요인으로 개체 수가 감소하고 있어 멸종 위기에 처한 동물들을 보호하기 위해 법령으로 규정한 야생 동물이다. I급은 현재 멸종 위기에 처한 종이며, II급은 현재의 위협 요인들이 제거되지 않는 경우 가까운 미래에 멸종할 수도 있는 종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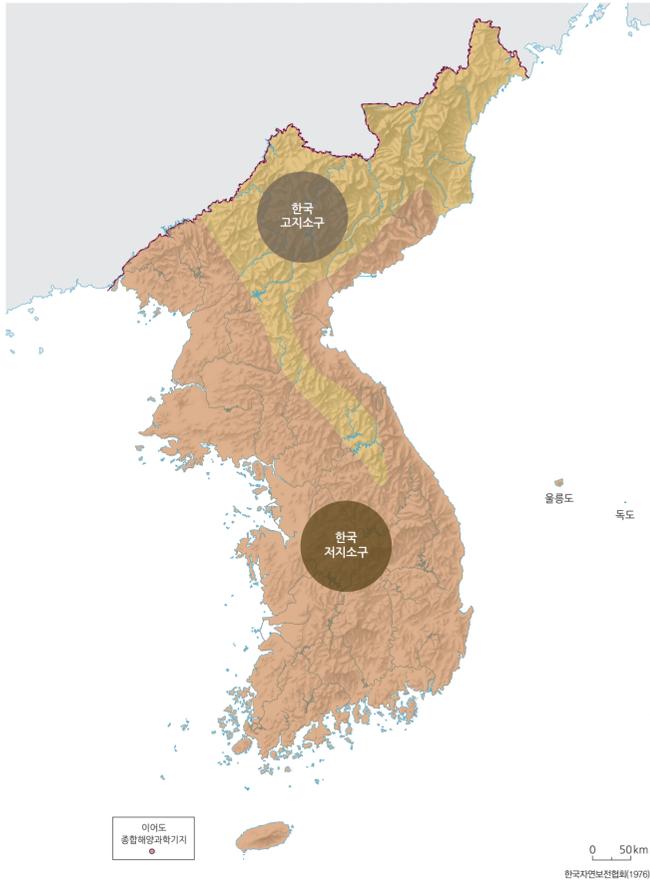
보호 동물종 수

분류군	멸종위기 야생동물 I급 종 수	멸종위기 야생동물 II급 종 수	계
포유류	12	8	20
조류	14	49	63
파충류	1	3	4
양서류	1	3	4
어류	11	16	27
곤충류	6	20	26
무척추동물류(곤충류 제외)	4	28	32
합계	49	127	17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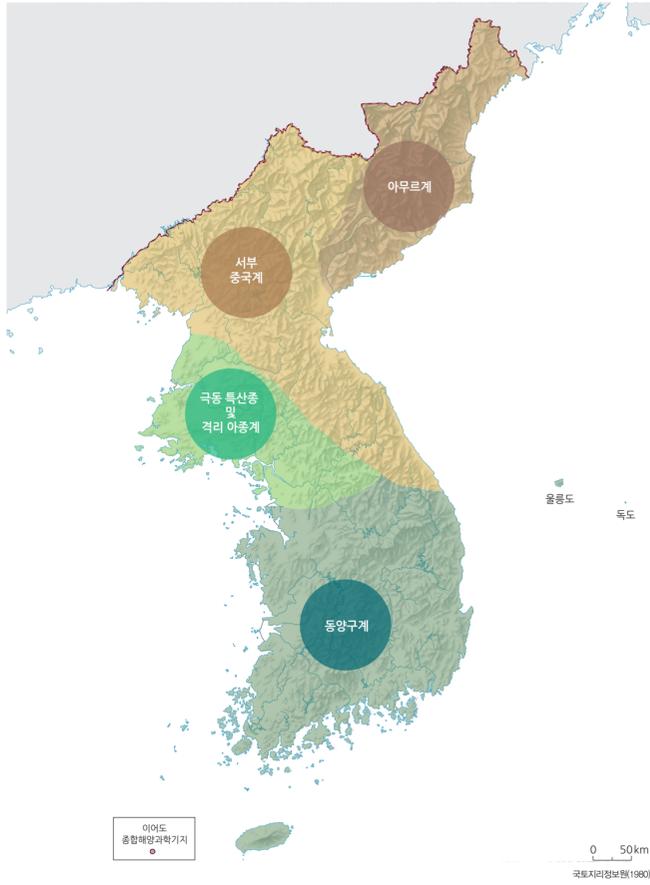
한경위(2019)

동물 지리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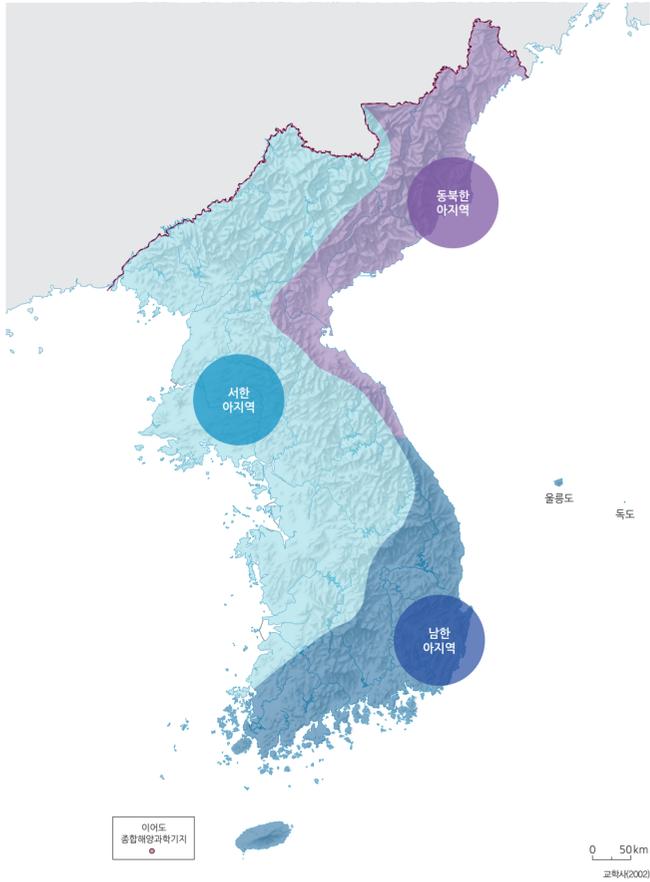
포유류 및 조류의 분포구계



나비류의 분포구계



담수어류의 분포구계



동물의 지리적인 분포는 지형, 기후, 수문, 식생의 특성을 반영한 서식지 환경에 따라 결정된다. 그러나 동물은 식물에 비해 환경에 대한 적응성이 높고 이동성이 커서 동물 지리구를 구분하는 것은 쉽지 않다. 윌리스의 동물 분포구계에 따르면 한반도는 아프리카 북부, 유럽, 아시아 대륙의 대부분이 포함되는 구북구계에 속한다. 한반도의 동물 지리구를 구획한 시도는 많지 않으나 포유류, 곤충류, 어류 등을 대상으로 부분적으로 시도되었다.

포유류와 조류는 분포와 식생대를 연계하여 한반도를 북방계의 한국고지소구와 남방계의 한국저지소구로 나누었다. 한국고지소구는 자연환경과 경관이 러시아 우수리 지방과 중국 동북부 지방의 북부와 비슷하며, 한대림이 발달하는 북한 묘향산맥, 개마고원, 우리나라 태백산맥 일부 고지대를 포함한다. 한국고지소구에 서식하는 포유류는 우수리맛쥐, 우노토끼, 북방애기박쥐, 검은담비, 무산쇠족제비, 대륙사슴 등이다. 조류로는 멧닭, 점박이멧새, 세가락딱따구리, 긴꼬리올빼미, 쇠오색딱따구리, 개미잡이 등이 서식한다.

한국저지소구는 온대림과 난대림이 발달하는 한국 서부, 중부 및 남부의 대부분을 포함하며 남한의 일부 고산(설악산, 지리산, 한라산 등)을 제외하고는 산림 지대가 적고 경작지가 많으므로 산록-평야 지대에 서식하는 동물이 분포한다. 포유류는 붉은박쥐, 고라니, 쇠갈밭쥐, 멧돼지 등이, 조류는 흑비둘기, 크낙새, 뿔총다리, 직박구리, 동박새 등이 대표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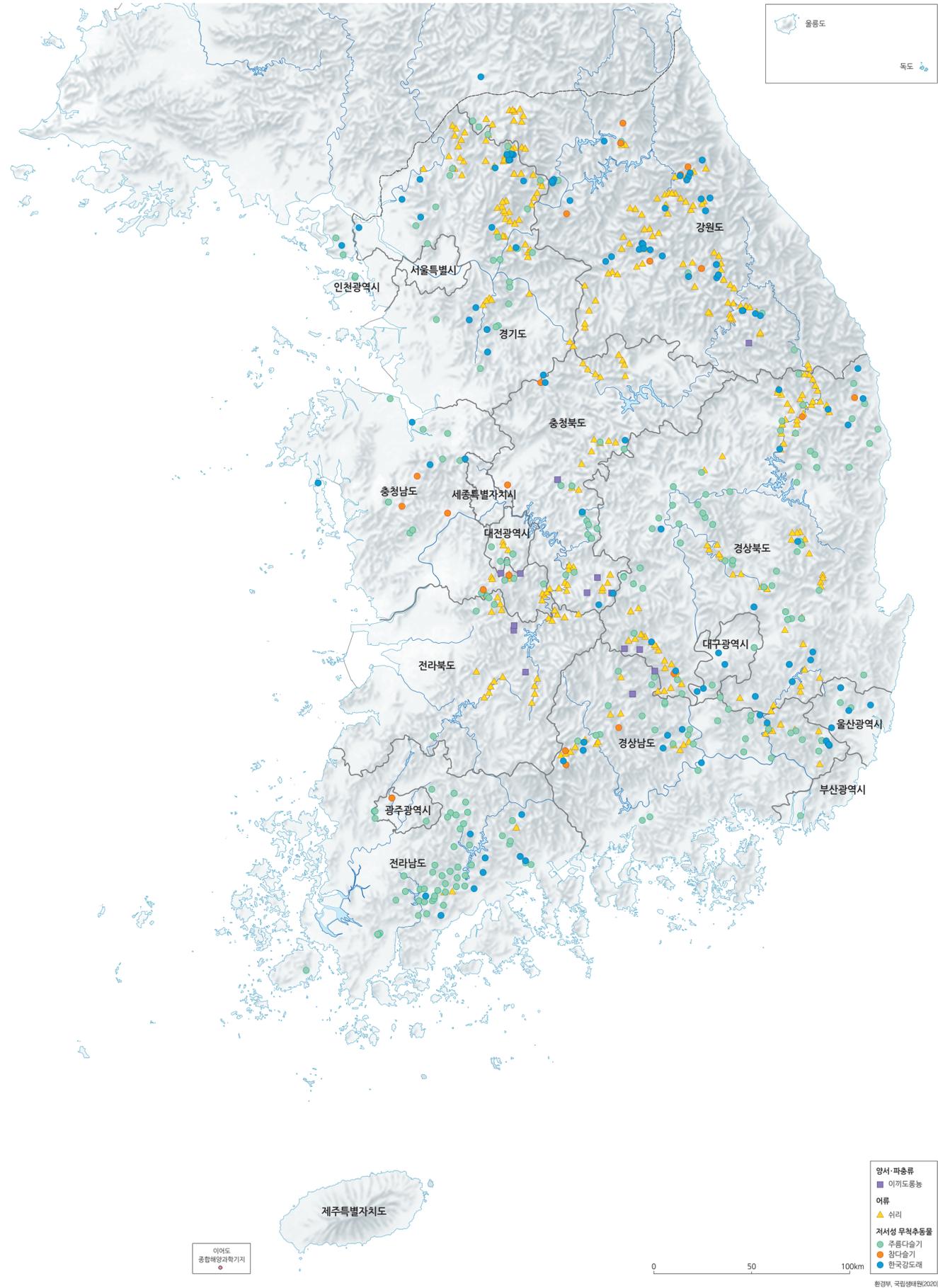
한반도에 서식하는 나비류는 분포와 구성(구북구계와 동양계의 비율)을 바탕으로 4개의 지리구로 구분되었다. 구북구계에는 시베리아 아무르 지방에서 남진한 계통으로 함경산맥눈나비, 백두산표범나비, 함경어리표범나비, 높은산부전나비 등이 분포한다. 남부 중국계에는 서부 중국, 몽골, 남만주 지방을 거쳐 압록강을 넘어온 제봉인 홍줄나비, 공작나비, 눈나비 등이 대표적이다. 극동 특산종 및 격리 아종계는 은관나비, 신선나비, 황새줄나비 등이 산다. 동양계에는 일본 큐슈, 쓰시마, 오키나와에서 한국 남부로 이주해 온 남방공작나비, 왕나비, 남방노랑나비, 사향제비나비 등이 서식한다.

담수어류는 우리나라 하천 수계와 민물고기 지리적 분포에 기초하여 남한을 태백산맥 동쪽 강릉 남대천 이북의 동북한아지역, 영산강 수계에서 낙동강 수계까지 남해로 흐르는 유역의 남한아지역, 영광군의 소화천 이북의 서해로 유입되는 하천을 포함한 서한아지역으로 분포구가 나뉘었다.

동북한아지역에 분포하는 담수어류로 벵다기, 북방종개 등이 있으며, 모래치, 연준모치, 종개 등 과거 아무르 하천에서 유래되었다고 보는 북방계 종이 있다. 남한아지역에는 모래주사, 왕종개, 수수미꾸리 등과 벵다기, 쌀미꾸리 등의 북방계, 송사리, 꺾저기 등 일본 공통종이 있다. 서한아지역에 서식하는 종은 어름치, 감돌고기, 금강모치, 돌상어 등의 특산종이 있으며, 북방계의 새미, 연준모치 등이 있다.

고유 동물종

주요 고유 동물종의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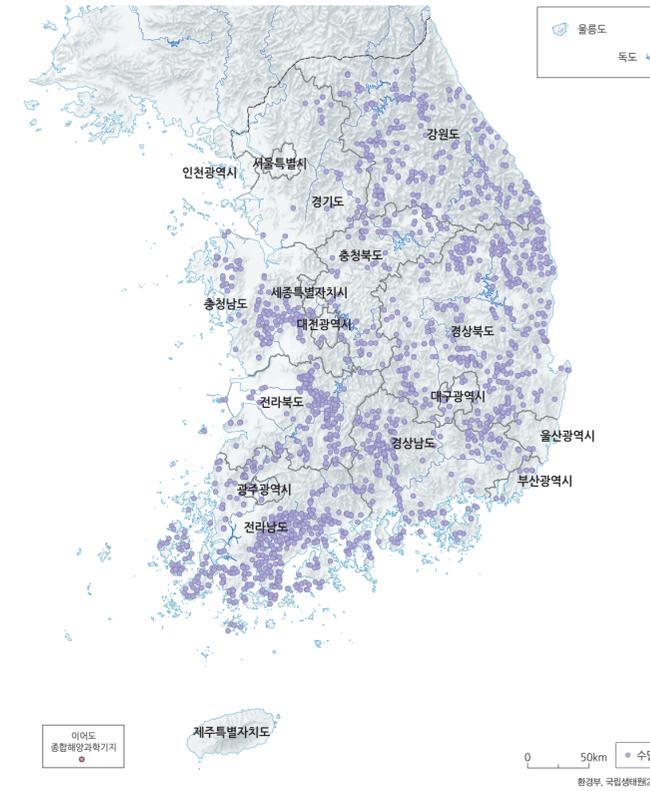


야생 포유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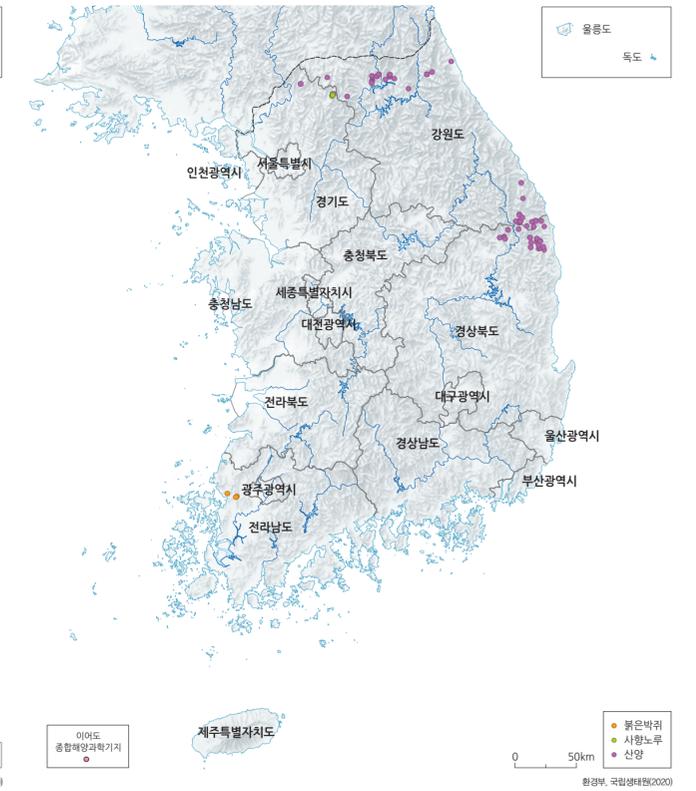
우리나라 육상과 해양에 서식하는 포유동물 125종(육상 포유류 7목 83종, 해양 포유류 2목 42종) 중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 야생생물은 20종(멸종위기 야생생물 I급 12종, II급 8종)이다. 이 중 반달가슴곰, 붉은박쥐, 작은관코박쥐, 사향노루, 산양, 수달(이상 I급)과 담비, 무산쇠족제비, 삿, 토끼박쥐, 하늘다람쥐(이상 II급)는 남한 지역

의 고산 지대에서 저지대, 해안가에 이르기까지 고루 분포하고 있다. 충청도, 경기도, 경북 일원에서 서식한다. 우리나라 해역에 서식하는 반달가슴곰은 지리산 권역에 주로 서식하며, 사향노루와 산양은 강원도 권역과 월악산 등, 담비, 삿, 하늘다람쥐, 무산쇠족제비, 수달은 전국적으로 분포한다. 붉은박쥐는 주로 충청도, 전라도, 경북 북부 지역, 토끼박쥐는 강원도와 북부 산간 지대, 작은관코박쥐는 강원도, 충청도, 경기도, 경북 일원에서 서식한다. 우리나라 해역에 서식하는 해양 포유류는 42종이며, 이 중 해양수산부 지정 해양보호생물은 흑등고래, 바다사자 등 16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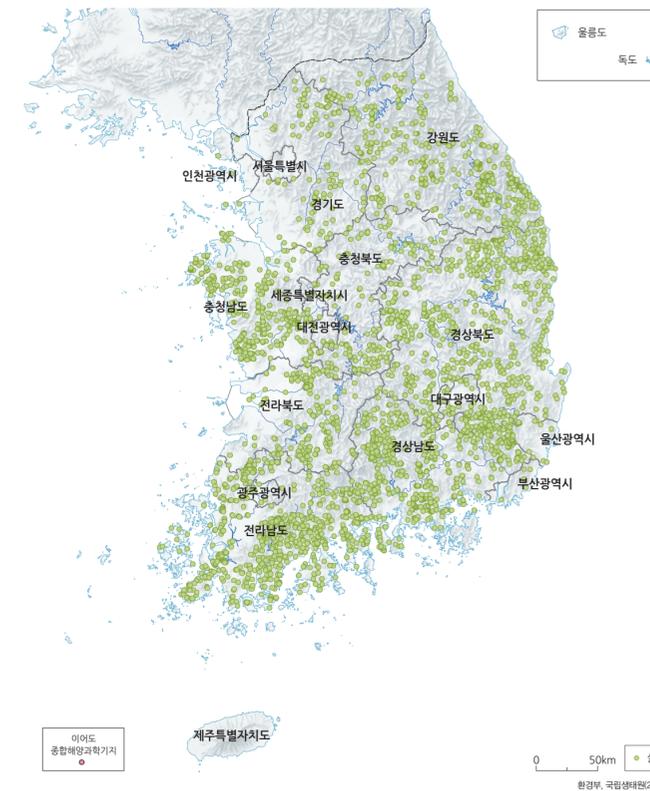
멸종위기 야생포유류 I급 분포(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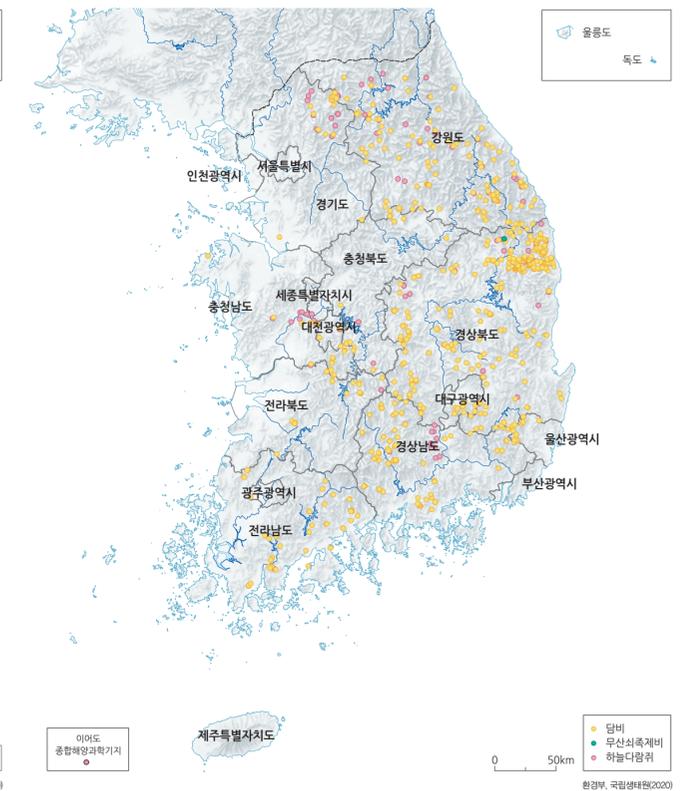
멸종위기 야생포유류 I급 분포(2)



멸종위기 야생포유류 II급 분포(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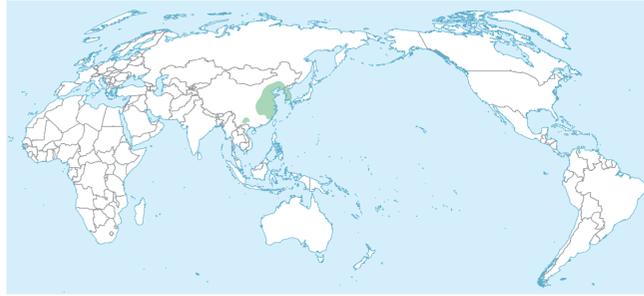


멸종위기 야생포유류 II급 분포(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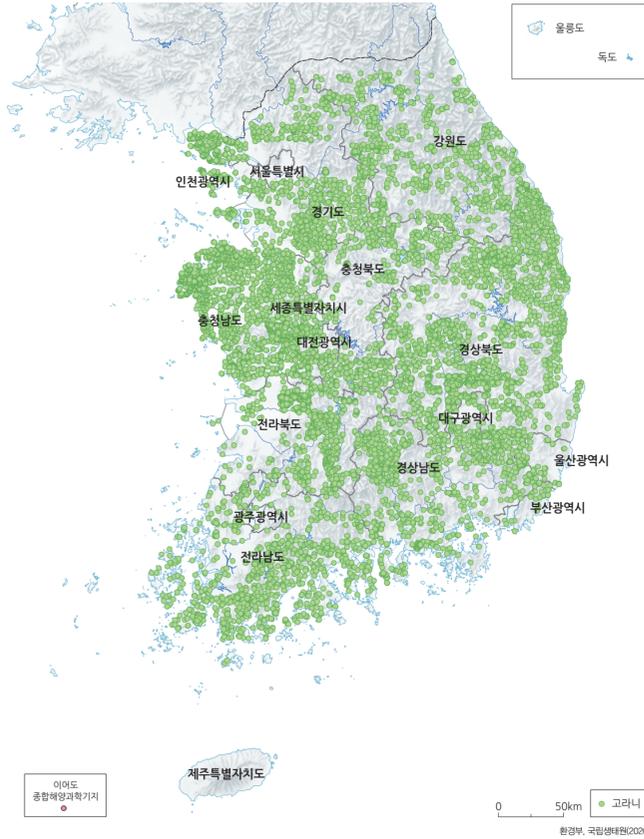
대표 야생 포유류

전 세계 고라니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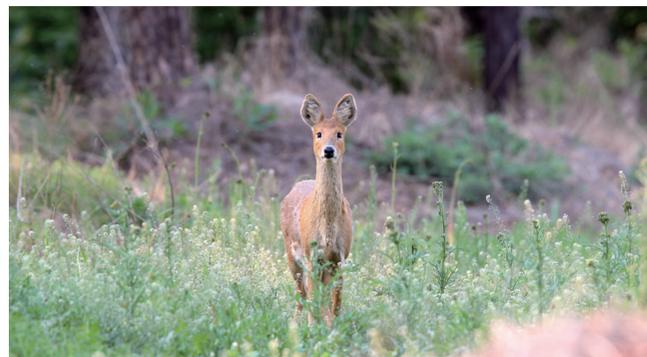


국립생태원(2016)

국내 고라니 분포



환경부, 국립생태원(2020)



고라니(안산 시화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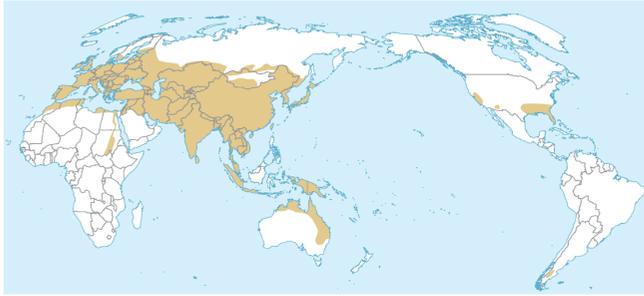
고라니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와 중국 일부 지역에만 서식하는 종으로, 두 나라에서 각각 서로 다른 아종으로 구분하고 있다. 수컷은 뿔이 없는 대신 다른 수컷과의 싸움이나 세력권을 표시할 때 사용하는 송곳니가 있다. 털갈이는 봄과 가을에 하고 깎짓기는 12월부터 1월 사이에 하며, 주로 6월 초에 2~6마리의 새끼를 낳는다. 저지대 숲과 경작지가 있는 곳에서 주로 활동하는 조심성 많은 동물이다.

멧돼지는 제주도를 제외한 우리나라 전역에 분포하였으나, 최근 제

주도 지역에서도 관찰되고 있다. 환경 적응성이 높고 번식률이 높아 개체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주로 야행성이며 해일을 잘 치고 수 km의 강이나 바다를 헤엄쳐 건너는 경우도 있다. 머리는 긴 원추형이며 뚜렷한 경계 없이 짧고 굵은 목과 붙어 있다. 삼각형인 깃바퀴는 뺏뺏하게 일어서 있고 눈이 매우 작고 다리는 굵고 짧다. 몸은 뺏뺏하고 끝이 들로 갈라진 털로 덮여 있고 몸 윗면에는 갈기와 같은 털이 나 있다. 털은 흑갈색을 띠며 나이가 들수록 희미해진다. 머리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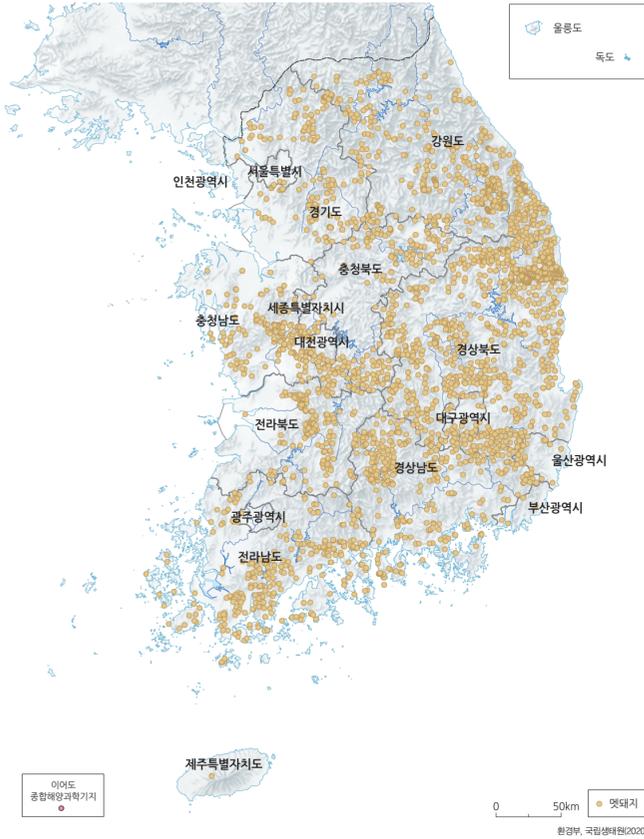
크고, 목은 짧으며 눈은 작고 귀는 비교적 큰 편이다. 콧등에는 2개의 송곳니가 뿔이 나와 있다. 한반도에 호랑이, 표범과 같은 대형 맹수류가 사라져 멧돼지의 개체 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농작물의 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환경부에서는 유해야생동물로 지정하여 인위적으로 개체 수를 조절하고 있다.

전 세계 멧돼지 분포



국립생태원(2016)

국내 멧돼지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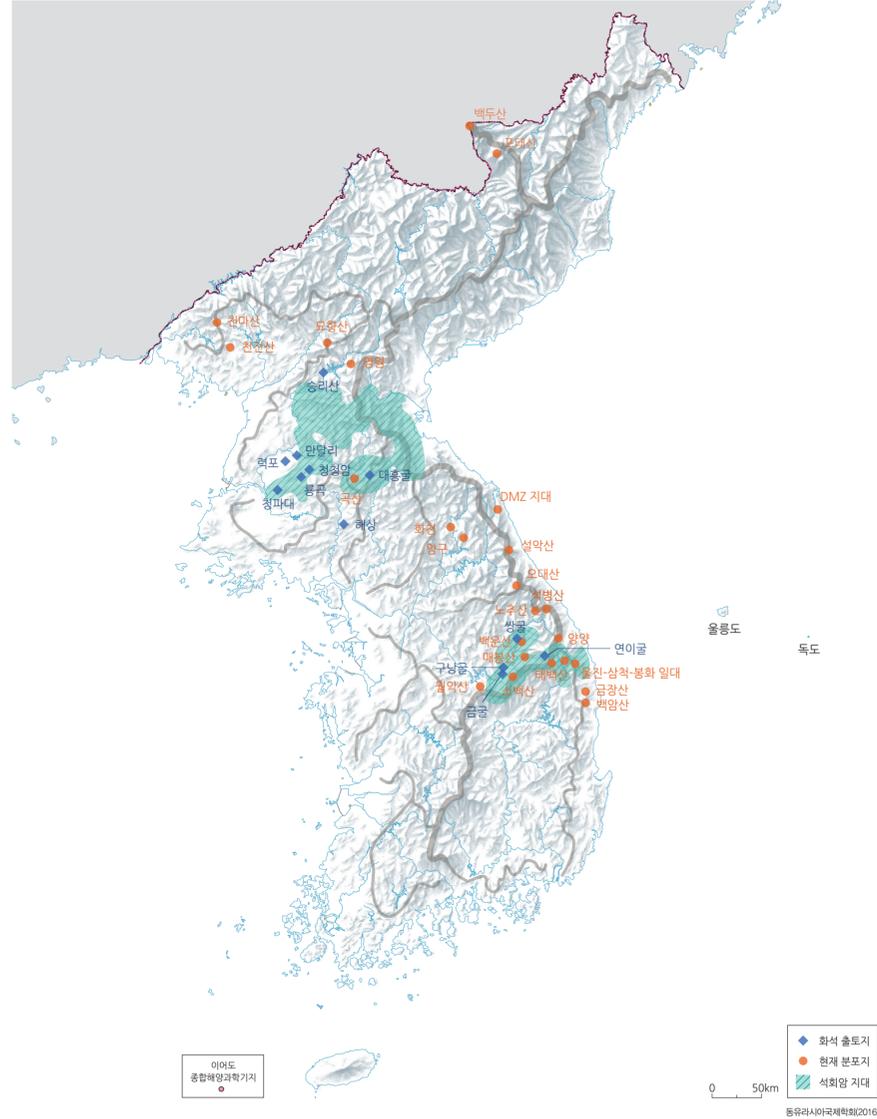


환경부, 국립생태원(2020)



멧돼지(고성 민통선 지역)

산양의 서식지와 화석 출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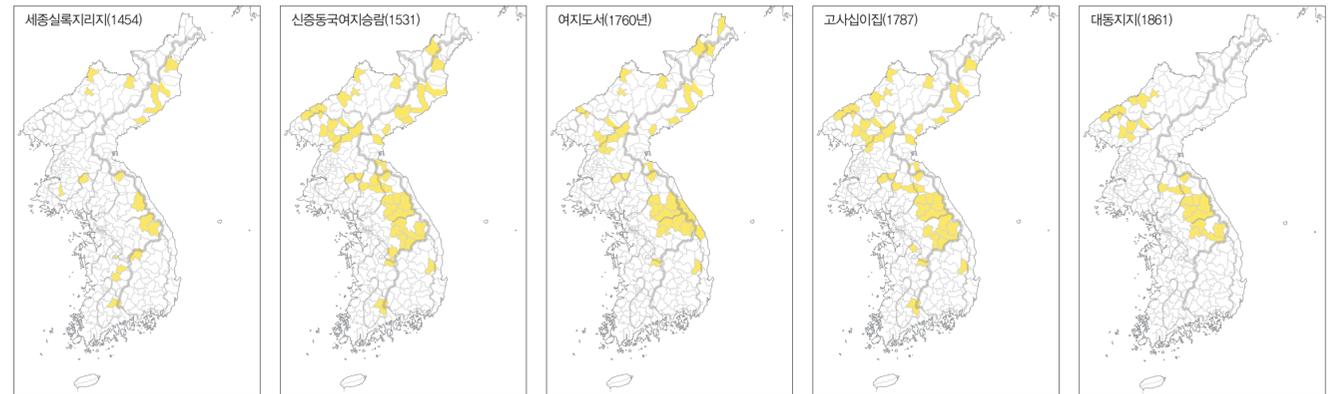
동유리아국재학회(2016)

산양은 약 200만 년 전부터 지구상에 출현하여, 원시적인 형질을 유지하고 있어 살아 있는 화석이라고도 부른다. 산양은 러시아와 중국, 우리나라를 포함한 아시아 동북부의 산악 지역에 서식하는 야생 염소의 일종이다. 한국에서는 약 700~800마리가 서식하는 것으로 추정되어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지정되어 있으며, 천연기념물 217호이다. 주로 낭림산맥과 태백산맥을 따라 서식하고 백두산 주변과 DMZ에서도 발견된다.

산양 화석은 약 21만 년 전(플라이스토세 중기)으로 추정되는 평양

대현동 력포 유적에서 출현한 뒤 북한의 평양시 룡곡, 대흥굴, 청청암, 만달리, 평안남도 덕천시 승리산, 황해북도 평산군 해상 동굴, 황주군 청파대 7곳, 남한의 충북 단양군 금굴, 구남굴, 강원도 평창군 쌍굴, 영월군 연이굴 4곳 등 대부분 한반도 북서부의 지평한 지역과 중부에서 출토되었다. 산양 화석이 발견된 유적지 고도는 평창군 쌍굴, 영월군 연이굴, 단양군 구남굴을 제외하면 150m 미만이다. 이는 지질 시대에는 산양이 오늘날처럼 한반도 동부의 높고 험준한 산지만이 아니라 서부의 낮은 지대까지 분포하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조선 시대 산양의 시공간적 분포 변화



산양 화석 출토지

출토지	위치	위도	경도
승리산	평안남도 덕천시 덕천읍 승리산	39° 45' 06"N	126° 17' 31"E
력포	평양시 력포구역 대현동 룡곡리	38° 55' 57"N	125° 51' 25"E
청청암	평양시 상원군 상원읍 바람굴	38° 51' 38"N	126° 08' 43"E
만달리	평양시 송호구역 만달리	38° 59' 13"N	125° 59' 37"E
룡곡	평양시 상원군 룡곡리	38° 47' 25"N	126° 02' 45"E
대흥굴	평양시 상원군 대흥리	38° 48' 07"N	126° 03' 26"E
청파대	황해북도 황주군 황주읍	38° 40' 12"N	125° 46' 33"E
해상	황해북도 평산군 해상의 화굴	38° 21' 49"N	126° 32' 46"E
쌍굴	강원도 평창군 미탄면 기화리	37° 18' 37"N	128° 31' 39"E
연이굴	강원도 영월군 상동읍 구래리	37° 08' 53"N	128° 50' 58"E
구남굴	충북 단양군 가곡면 여천리	37° 02' 11"N	128° 22' 13"E
금굴	충청북도 단양군 단양읍 도담리	36° 59' 36"N	128° 21' 35"E



산양(강원도 태백산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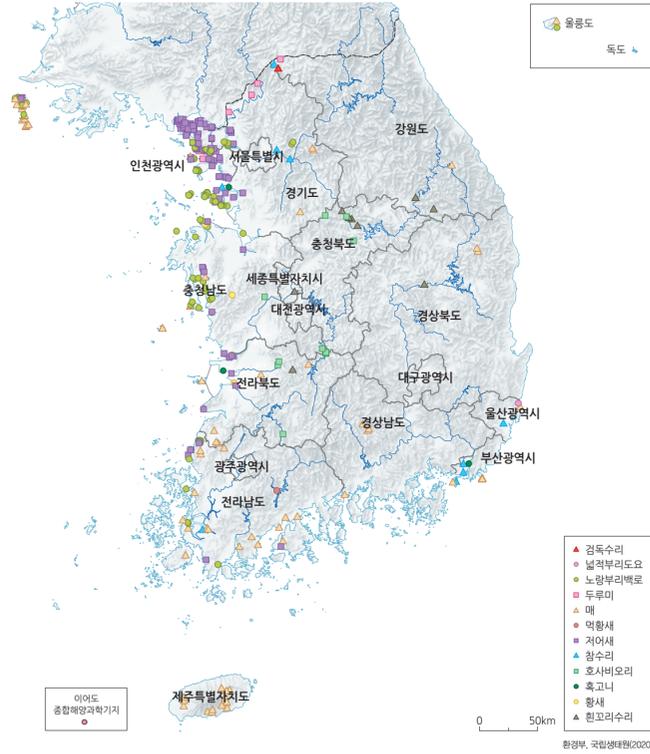
역사 시대 산양의 분포는 조선 시대 5종류의 고문헌을 기초로 작성되었다. 각 문헌에는 당시 지방에서 조정에 바친 진상품과 지역 토산품을 기록해 놓았다. 당시에는 산양을 '영양'으로도 많이 불렀으며, 산양뿔을 지역 토산물 중 하나로 여겼다. 영양각, 영양이뿔, 산양각 등을 지역 토산품으로 기록한 곳을 찾아 산양 분포를 지도에 나타내었다.

고문헌(세종실록지리지(1454), 신증동국여지승람(1531), 여지도서(1760), 고사십이집(1787), 대동지지(1861))에 의하면 산양은 조선 시대에 강원도, 평안도, 함경도에 주로 분포하였다. 즉 지질 시대에 한반도 전역에 분포하던 산양이 인간의 간섭에 의해 서식지를 잃고 현재의 서식지 일대로 이동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조선 시대에 경상도 청송, 전라도 남원, 구례에서도 산양이 보고되어 일부 지역에서는 오늘날보다 넓은 지역에 분포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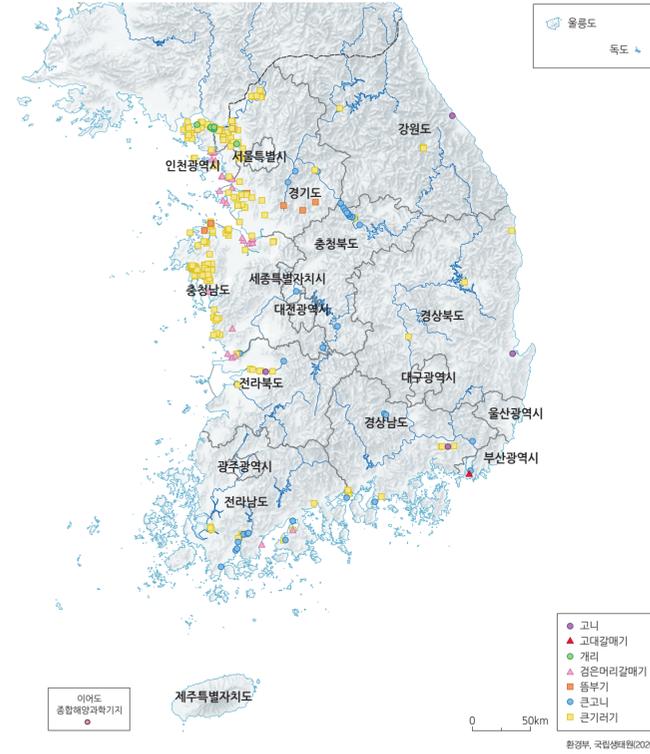
오늘날 산양 분포지는 산양이 서식하기에 이상적인 환경이라기보다 인구 증가와 그에 따른 토지 이용 변화, 화전과 같은 산지에서의 경작 활동, 야생 동물 포획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지금의 분포지를 떠난 채 살아 간존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화전은 산양이 서식할 수 있는 공간을 축소시켜 플라이스토세 이후 산양 서식지를 동부 산악 지역으로 이동, 제한시킨 중요한 요인의 하나로 여겨진다.

멸종위기 야생조류

멸종위기 야생조류 I급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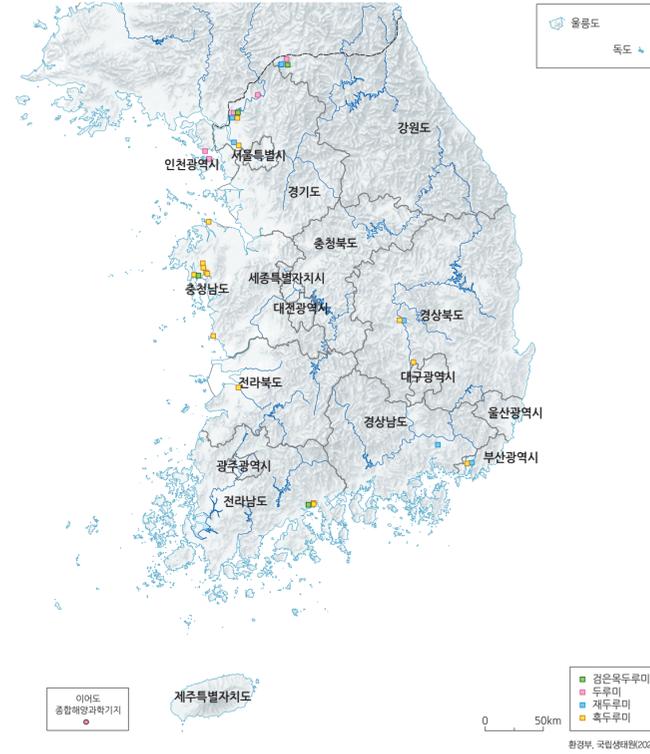


멸종위기 야생조류 II급 분포(물새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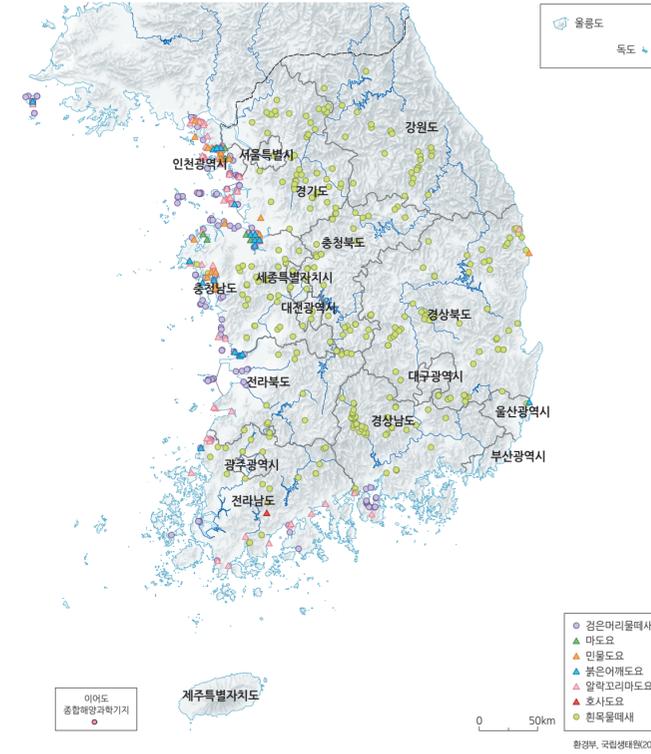


대표 야생 조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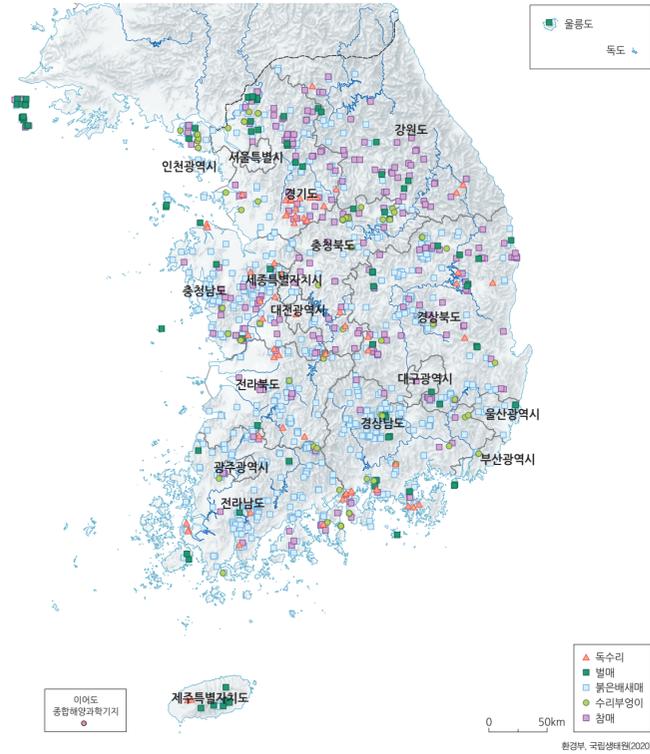
두루미류의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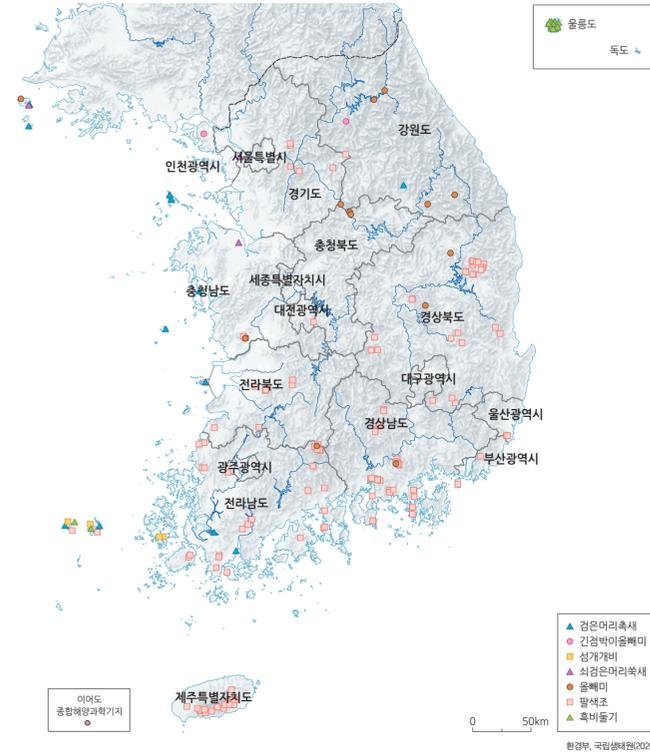
도요류와 물떼새류의 분포



멸종위기 야생조류 II급 분포(맹금류)



멸종위기 야생조류 II급 분포(산새류)



우리나라에는 2019년 기준 537종의 조류가 기록되어 있으며, 연구자 및 탐조가들에 의해 미기록종이 계속 추가되고 있다. 이 중 60여 종이 텃새이고 약 462종이 이동하는 철새이다. 우리나라의 천연기념물 조류는 크낙새 등 47종이 지정되어 있다. 우리나라에서 기록된 조류 중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 야생생물은 63종(I급 14종, II급 49종)이다. 멸종위기 야생조류 I급에는 흑고니, 황새, 저어새, 노랑부리백로, 매, 흰꼬리수리, 참수리, 검독수리, 두루미, 청다리도요사촌, 넓적부리도요, 크낙새, 멧황새, 호시비오리가 있다.

흑고니는 화진포와 천수만에서, 황새는 해안, 하구 등을 중심으로 겨울철에 소수가 도래한다. 저어새는 서해안 무인도 일대에 주로 번식하고 제주에서 적은 개체가 월동한다. 노랑부리백로는 서해안 무인도에서 번식하고, 매는 주로 해안이나 섬의 절벽에서 번식한다. 흰꼬리수리와 참수리는 해안과 하구, 대규모 간척 해안, 댐, 호수 혹은 큰 하천 주변에서 월동하며, 검독수리는 국내에서도 번식 기록이 있으나 주로 하천, 해안, 내륙의 평지 등에서 월동한다. 두루미는 겨울철새이며, 청다리도요사촌과 넓적부리도요는 봄과 가을철 서해안과 남해안 갯벌에서 관찰되는 나그네새이다. 크낙새는 활엽수와 침엽수가 혼

합된 산림 지역에 서식하며 우리나라 여러 지역에서 관찰 및 번식 기록이 있으나 1990년대 이후 관찰 기록이 전혀 없다. 멸종위기 야생조류 II급에는 습지나 하천 주변에 서식하는 개리, 큰기러기, 갯벌이나 해안에 서식하는 검은머리물떼새, 알락꼬리마도요, 뽕쇠오리, 도서 지역의 흑비둘기, 섬개개비, 조지나 산림 지역의 붉은배새매, 수리부엉이, 참매, 까막딱따구리, 팔색조 등이, 개활지의 솔개, 큰말뼉가리, 독수리 등이 있다.



두루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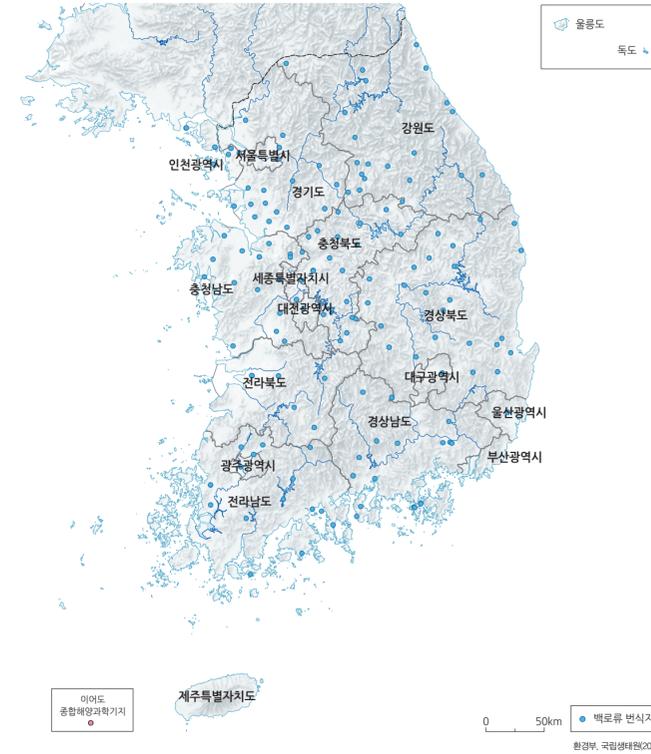
검은목두루미



알락꼬리마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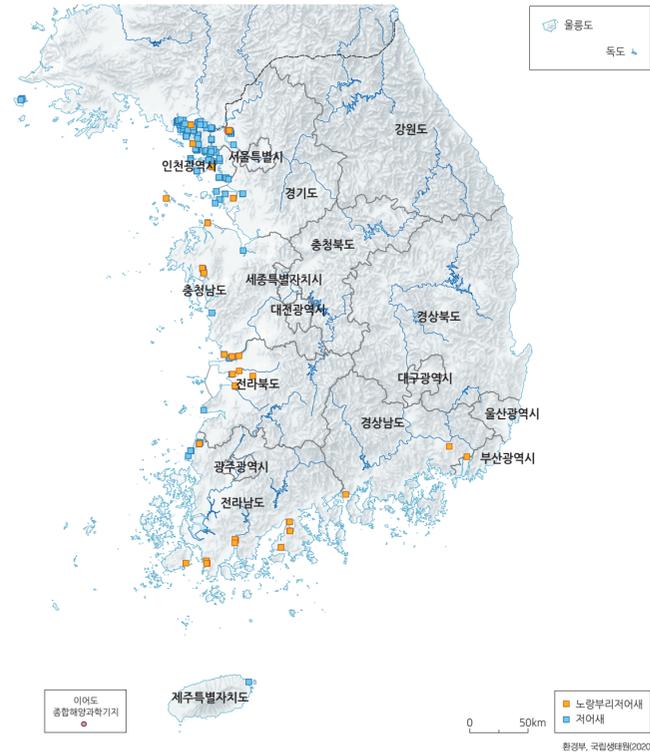
두루미류는 두루미과에 속하는 종들로 몸이 크고 다리가 길며 목이 긴 것이 특징이다. 전 세계에 4개 속 15종이 있으며, 우리나라에는 두루미, 재두루미, 흑두루미가 주로 관찰되고, 이동기 및 월동기에는 쇠재두루미, 검은목두루미, 시베리아흰두루미, 캐나다두루미 등이 드물게 관찰된다. 두루미류는 여름철 북반구 고위도의 습지나 초지에서 번식하고 겨울철에는 남하여 10월에서 3월 까지 우리나라나 일본 등지에서 월동한다. 월동지에서 잠자리와 먹이타가 구분되는 일주 행동을 가지며, 주요 먹이는 농경지의 낙곡, 하천의 무척추동물, 식물 구근 등이다. 흑두루미는 중간 기착지로 우리나라를 이용하는 것이 대부분이었지만 최근 월동하는 개체가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에 서식하는 두루미류 중 두루미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I급과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있으며 시베리아흰두루미는 국제적 멸종위기종(IUCN Red List)으로 위급종(CR; Critically Endangered)으로 보호되고 있다. 습지에 서식하면서 다양한 부리 형태와 긴 다리로 걸어 다니는 습성을 지니는 조류 집단을 섬금류(shorebirds or waders)라고 하며, 전 세계적으로 216종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중 70.8%가 도요류와 물떼새류이다. 우리나라에서 기록된 도요류와 물떼새류는 도요목에 속하는 검은머리물떼새과, 장다리물떼새과, 물떼새과, 호시도요과, 물평과, 도요과, 제비물떼새과로 7개과 63종이 있다. 특히 도요류와 물떼새류는 번식과 월동을 위해 동아시아-대양주 철새이동경로를 따라 장거리를 이동하는데, 우리나라는 그 중간 기착지에 해당한다. 주로 갯벌, 하구, 염전, 해안가 등 얕은 습지에서 갈갈류, 연체동물, 곤충의 성

백로류 번식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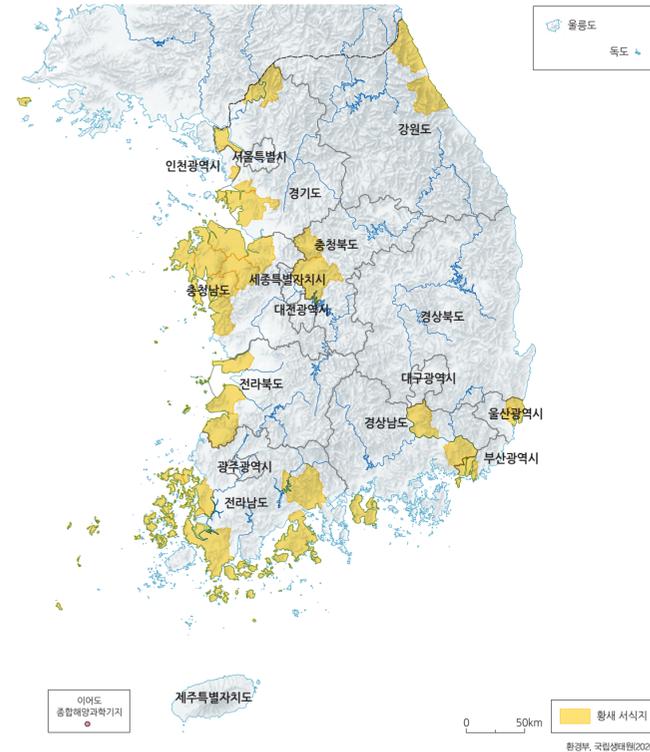


충과 유충 등 다양한 동물성 먹이를 먹지만 일부는 식물성 먹이를 먹기도 한다. 백로류는 전 세계에 72종이 분포하며 그중 18종이 우리나라에 서식한다. 이 가운데 주요 종은 해오라기, 왜가리, 중대백로, 중백로, 쇠백로, 흰날개해오라기, 황로, 흑로, 노랑부리백로 9종으로 인가와 인접한 낮은 구릉지성 산림이나 무인도 산림에서 집단으로 번식한다. 이와 달리 텃새해오라기와 큰덤불해오라기는 정수식물 군락에, 검은댕기해오라기는 산림 지역에서 단일 쌍으로 번식한다. 붉은해오라기는 2009년 부산 구룡산과 제주도에서 번식이 확인되었다. 열대붉은해오라기, 검은해오라기, 붉은왜가리는 봄철과 가을철 이동기에, 알락해오라기는 겨울철에 드물게 관찰되며, 푸른눈테해오라기는 2006년 군산에서 1개체가 구조된 기록이 있다.

저어새류의 분포



황새 서식지



전 세계 36종의 저어새와 조류 중에 우리나라에 서식하는 종은 5종이다. 이들은 갯벌, 논, 하구 등 수심이 얇은 습지에서 서식하며, 작은 어류나 새우류, 양서류, 수서 곤충, 우렁이 등을 잡아먹는다. 저어새는 남한과 북한의 접경 지역에 있는 무인도에서 주로 번식하며, 그 외에도 영광 칠산도, 강화 남단 각시바위, 인천 남동 유수지 인공 섬 등 접경 지역이 아닌 서해 연안에서도 번식한다. 1994년에 전 세계에 약 300여 개체를 살아남는 것으로 조사되어 국제적으로 절멸 위기에 처해 있었던 저어새는 이후 국제적 보호 노력으로 개체 수가 꾸준히 증가하여 현재 4,000개체 이상이 서식한다. 주로 여름철새이지만 제주도 등지에서 40개체 미만이 월동한다. 노랑부리 저어새는 흔하지 않은 겨울철새이다. 충남 천수만 간척지, 주남 저수지, 순천만, 한강 하구 등지에서 월동하며, 10월 중순에 도래하여 3월 하순까지 관찰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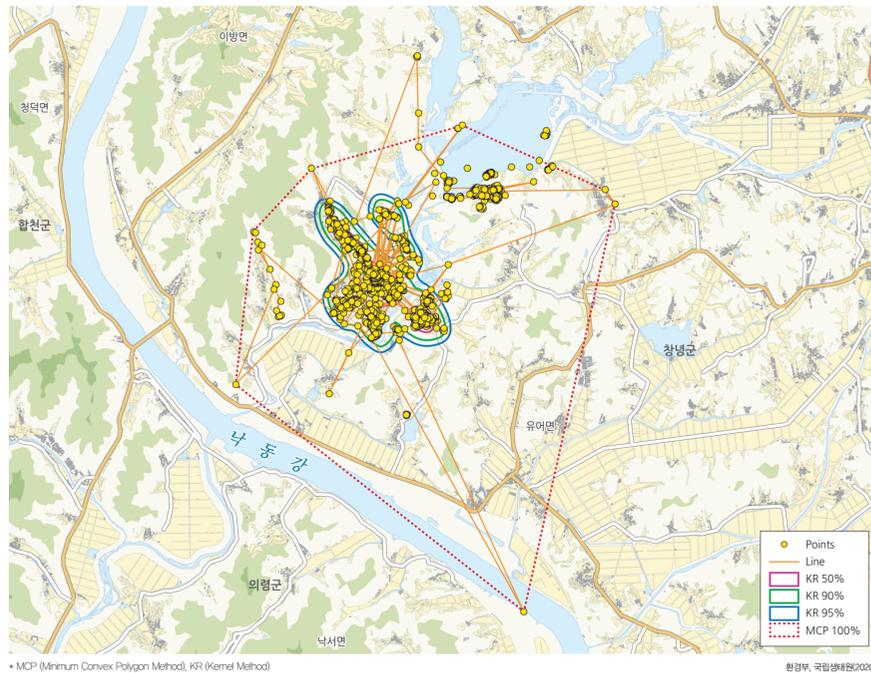
저어새



황새

전 세계 분포하는 19종의 황새류 중에 황새와 먹황새 2종이 우리나라에 서식한다. 이들은 논, 수심이 얇은 하천, 농경지, 습지 등지에서 미꾸라지, 개구리, 뱀 등 어류, 양서류와 파충류 등을 잡아먹는다. 황새는 1970년 4월 충북 음성에서 번식하는 개체가 희생된 이후 야생 텃새 집단이 사라졌다. 1996년 이후 복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러시아, 독일, 일본에서 총 38개체를 도입하였으며, 약 160개체를 인공 증식하였다. 이 중 야생에 방사된 개체는 67개체이며, 2016년 이후 53개체가 야생에서 부화하였다. 먹황새는 앞이 트인 산림 가장자리 바위 절벽에서 번식한다. 1968년 경북 안동 가송리에서 번식이 확인된 이후 국내 번식 개체는 사라졌다. 먹황새는 오늘날 적은 수가 통과하는 나그네새이며 겨울철새이다. 전남 화순 동북호 일대, 경북 영주, 예천 일대 내성천 등지에서 적은 수가 월동한다.

우포 복원지 일대 따오기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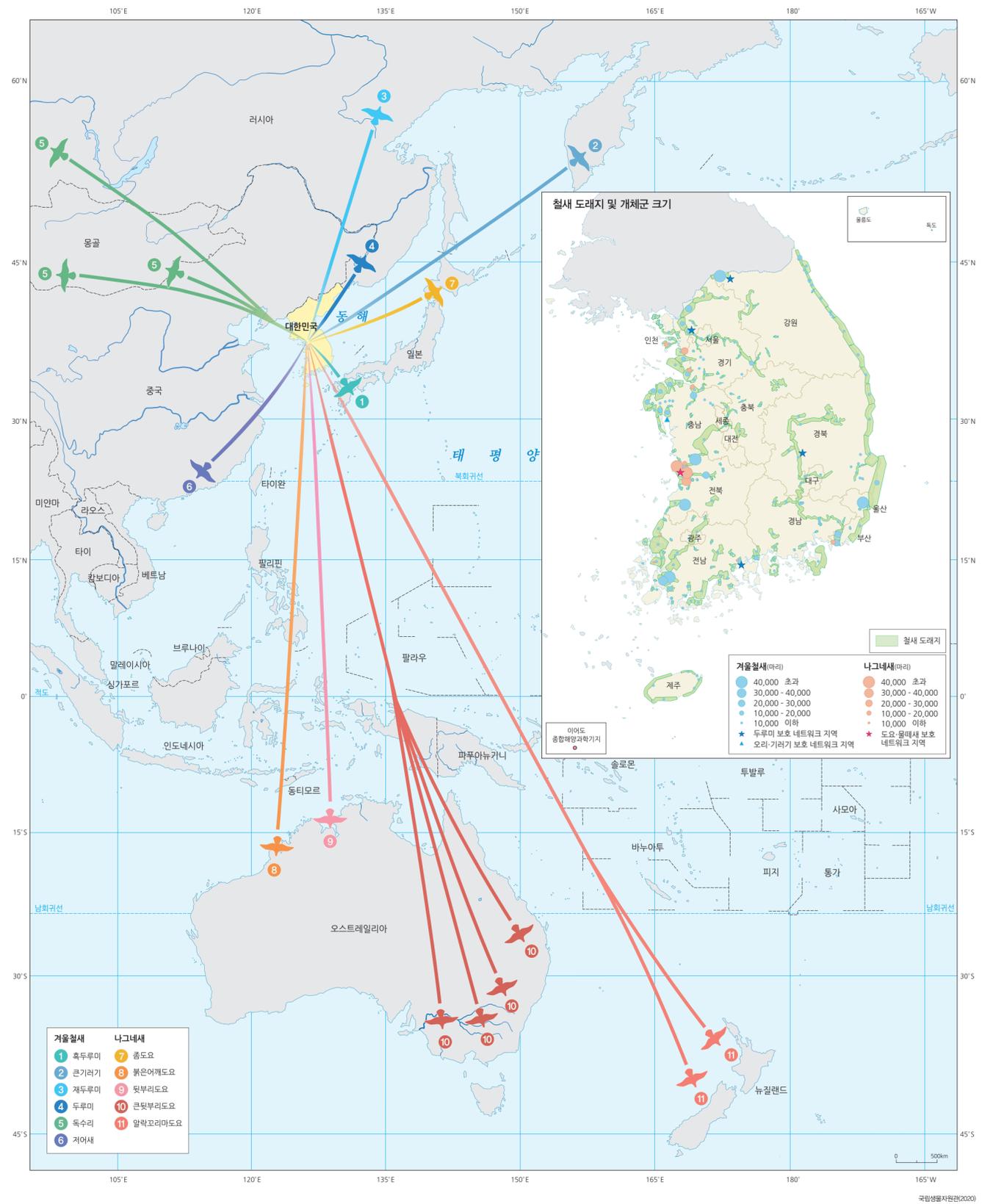
따오기

저어새과에 속하는 따오기는 과거 겨울철새로 도래하였으며, 한반도에서는 북부지방에서 번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국내에서는 1978년 12월 이후 야생 개체는 확인되지 않았다. 2008년 이후 경남 창녕 우포에서 복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20년까지 4개체를 도입하여 총 401개체를 인공 증식하였고, 2019년 이후 40개체를 야생에 방사하였다. 검은머리흰따오기와 적갈색따오기가 저어새과에 속하며 이들은 길 잃은 새(미조)로서 몇 차례 관찰 기록만 있는 종이다.

산림성 조류관 산림에서 번식 또는 월동을 하거나 이동 중 일시적으로 산림에 머무르는 조류로 우리나라에는 244종이 알려져 있다. 산림성 조류는 산림을 동지와 먹이터로 하는 종류(강한 선호성)와 동지 또는 먹이터로 사용하는 종(중간 선호성), 이동 중 머무르는 장소로 이용하는 종(약한 선호성)으로 나눌 수 있는데, 강한 선호성 종은 188종류, 중간 선호성 종은 46종류, 약한 선호성 종은 10종류이다. 산림성 조류 밀도 조사는 2003년부터 광릉, 계방산, 금산, 제주도에서 장기생태연구로 진행되고 있으며, 2015년부터 백두대간으로 확대하여 오대산, 태백산, 소백산, 덕유산, 지리산(산림, 하천, 농경지, 주거지 포함) 등지에서 진행되고 있다.

철새의 이동 경로

주요 철새의 이동 경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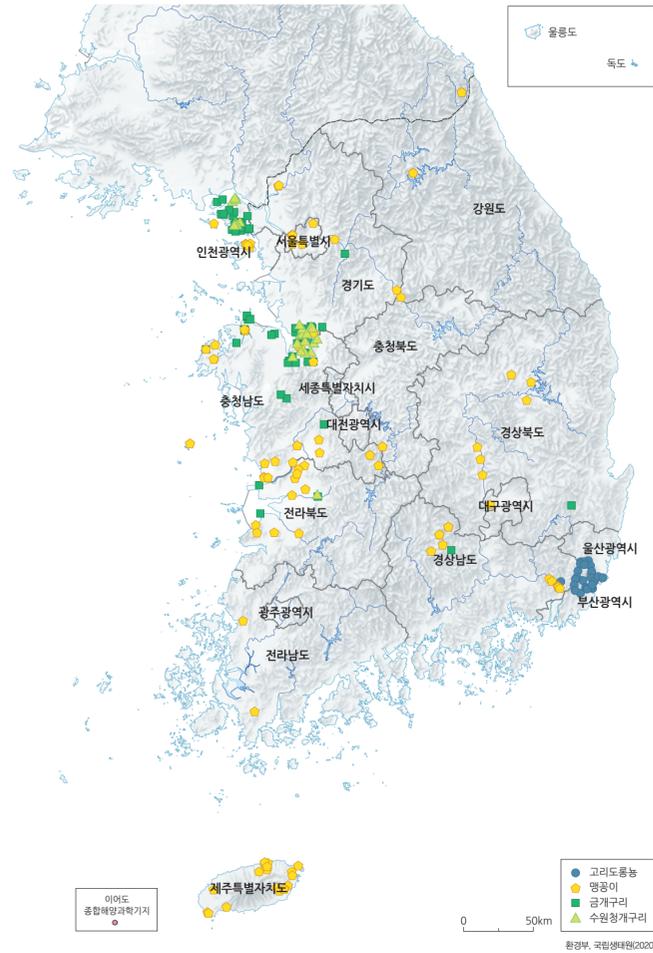


국제적으로 멸종 위기에 처한 많은 조류들이 우리나라를 월동지, 번식지, 경유지로 이용하고 있다. 특히 오스트레일리아와 뉴질랜드에서 겨울을 보내고 시베리아 번식지로 이동하는 도요류와 물떼새류는 우리나라 서해안 갯벌에서 봄, 가을에 먹이를 보충한다. 전 세계에는 번식과 월동을 위해 이주하는 9개의 철새이동경로가 있으며 우리나라는 동아시아-대양주 철새이동경로(EAAF: East Asian-Australasian Flyway)에 속한다. 동아시아-대양주 철새이동경로 상에는 세계적으로 멸종 위기에 처한 32종의 조류와 위기 근접 19종의 조류를 포함하여, 250개 이상의 개체군, 5,000만 마리 이상의 조류들이 서식한다. 이 경로상에는 참새목에 속하는 소형 조류도 있다. 이들은 봄철과 가을철 중국 남부, 동남아시아 등지의 월동지와 한반도, 몽골, 중국, 러시아 등지의 번식지를 이동하면서 서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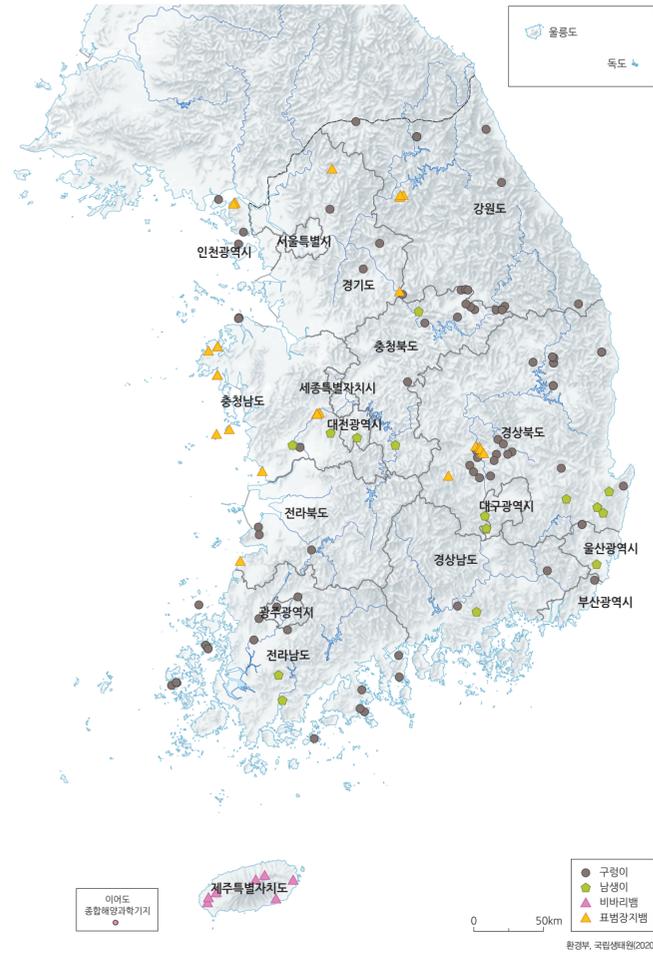
해안 도서 지역을 경유한다. 신안군 흑산도에 위치한 국립공원조류연구센터에서 2005년 이후 가락지 부착 조사를 한 결과 370여 종이 봄-가을철 주기적으로 통과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므로 도서 지역은 이들 소형 조류의 중간 기착지로서 매우 중요하다. 2019년 소청도에 국가철새연구센터가 설립되어 서해 5도를 중심으로 한 도서 지역의 조류 이동 연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양서류와 파충류

멸종위기 양서류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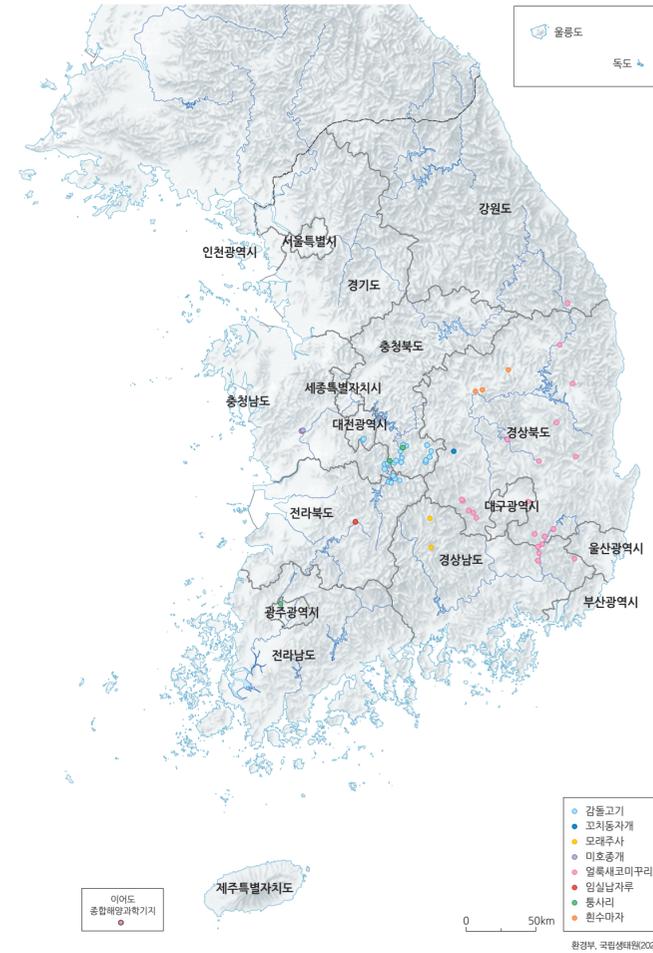


멸종위기 파충류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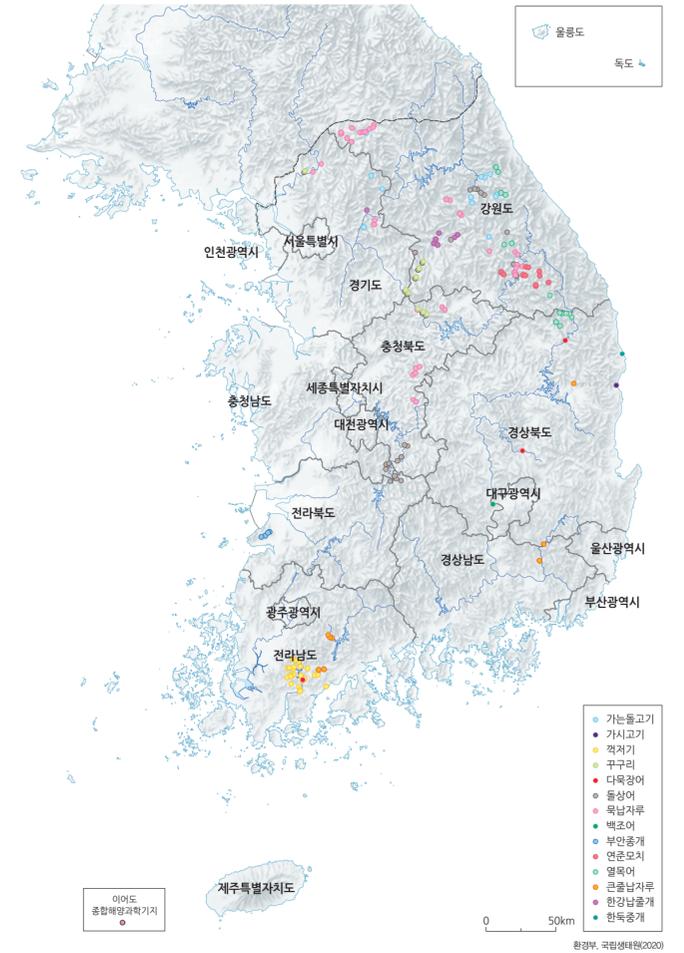


담수어류

멸종위기 담수어류 I급 분포



멸종위기 담수어류 II급 분포



고리도롱뇽
멸종위기 야생생물 II급, 한반도 고유종
고리도롱뇽은 경상남도 일부 지역에 분포하며, 산림 지대와 경작지 주변에서 서식하고 서식지 주변의 산림 지대로 이동하여 생활한다. 고리도롱뇽의 전체 길이는 7 - 12cm이고 주둥이부터 총 배설강까지 길이는 4 - 6cm이다. 주로 밤에 활동하며, 개미, 딱정벌레, 귀뚜라미와 같은 곤충류와 지렁이, 거미류, 수서 곤충류를 잡아먹고, 수명은 10 - 11년이다.



이끼도롱뇽
한반도 고유종
이끼도롱뇽은 충청남도, 충청북도, 전라북도, 경상남도, 강원도의 산림 지대에 주로 분포한다. 개국, 하천 주변의 나무가 울창한 곳의 돌무덤 안과 고목, 낙엽 아래에서 주로 서식한다. 이끼도롱뇽은 전체 길이 6 - 10cm이고 주둥이부터 총 배설강까지 길이는 3 - 5cm이다.



제주도롱뇽
한반도 고유종
제주도롱뇽은 제주도 서-남해안 일부 지역에 분포하며, 산림 지대와 경작지 주변의 농수로, 웅덩이 주변, 산림 지대 주변에 서식한다. 제주도롱뇽의 전체 길이는 9 - 14cm이고 주둥이부터 총 배설강까지 길이는 5 - 7cm이다. 개미, 딱정벌레, 귀뚜라미와 같은 곤충류와 지렁이, 거미류, 수서 곤충류를 잡아먹고, 수명은 9 - 10년이다.



한국산개구리
한반도 고유종
한국산개구리는 제주도를 제외한 우리나라 전역에 분포하며, 산림 지대와 인접한 평지의 논, 논수리, 습지, 웅덩이와 주변의 초지에서 서식한다. 주둥이부터 총 배설강까지 길이는 3.5 - 5cm로 산개구리류 가운데 몸집이 가장 작다.



구렁이
멸종위기 야생생물 II급
제주도를 제외한 우리나라 전역에 분포하며, 주로 산림 지역, 경작지, 민가 주변을 비롯하여 해안과 상에 서식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뱀이다. 개체에 따라서 체색 변이가 많다. 몸통 가운데 바늘 열은 대부분 22줄이고, 바늘쪽부터 3 - 5줄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모두 용골이 있다.



비바리뱀
멸종위기 야생생물 I급
제주도에만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우리나라에서 가장 작고 가는 뱀이다. 대륙유혈목어와 흡사한 외모를 가지고 있지만, 침수리의 흡식 무늬는 목덜미까지 넓게 나타난다. 주로 초지에서 풀잡이와 도마뱀 등 소형 파충류를 잡아먹으며 소형 뱀류로 잡아먹는다.



표방장지뱀
멸종위기 야생생물 II급
제주도를 제외한 우리나라 전역에 분포하며, 하천 주변 초지나 바닷가 인근 해안과 사구의 초지, 산림 지대에서는 나타나 무덤 주변에서 확인된다. 다른 장지뱀류에 비해 머리가 크고 꼬리 길이는 몸통 길이와 거의 같다. 서서나 인공 건물에 있는 구멍(사육간)은 대부분 11쌍이다.



남생이
멸종위기 야생생물 II급
제주도를 제외한 우리나라 전역의 하천, 경작지, 저수지, 수로, 논 등에서 서식한다. 머리 측면은 뒤에부터 목 부분까지 녹색의 줄무늬가 여러 개 있다. 곤충류, 복족류, 갑각류, 어류, 수초 등을 모두 섭취하는 잡식성이다. 6-7월에 하천 주변 초지에 알을 낳고 4 - 15개의 알을 낳는다.

우리나라에는 32종의 파충류와 21종의 양서류가 서식한다. 이 중에서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 야생생물 I급은 비바리뱀, 수원청개구리이고, II급은 고리도롱뇽, 구렁이, 금개구리, 남생이, 뿔방장지뱀이다. 양서류 중에서 고리도롱뇽, 이끼도롱뇽, 수원청개구리, 제주도롱뇽, 한국산개구리, 금개구리 6종은 한반도 고유종으로 알려져 있다. 양서류와 파충류는 기후 변화와 서식지 주변의 환경 변화로 최근 개체 수가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다. 이들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연구와 더불어 서식처를 보호하려는 노력이 절실하게 요구된다.



감돌고기 멸종위기 야생생물 I급
하천 중·상류의 큰 돌과 자갈이 깔려 있는 곳에 서식하며, 썩은 산림사에 먹힌다. 금강, 만경강, 웅천천의 중·상류에 분포하는 한반도 고유종이다.



고치동자개 멸종위기 야생생물 I급
이형성으로 몸이 맑고 바닥이 자갈이나 큰 돌이 깔린 하천 상류에 서식한다. 한반도 고유종으로 낙동강 일부 수역에 제한적으로 분포하고 있으며, 천연기념물 제455호로 지정되었다.



미호종개 멸종위기 야생생물 I급
수심이 맑고 유속이 비교적 완만한 모래가 깔려 있는 곳에 서식한다. 한반도 고유종이며, 천연기념물 제454호로 지정되었다. 금강 수계의 일부 구간에서만 분포한다.



일목새코미꾸리 멸종위기 야생생물 I급
하천 중·상류의 유속이 빠르고 바닥에 큰 돌이나 자갈이 많이 깔린 지역에 서식한다. 한반도 고유종으로 낙동강 일부 수계에만 분포한다.



흰수마자 멸종위기 야생생물 I급
하천 중류의 모래와 자갈이 깔린 여울 바닥에 서식한다. 한반도 고유종으로 낙동강, 한강, 금강, 임진강에 분포한다.



క్క지개 멸종위기 야생생물 II급
흐름이 완만하고 큰 돌과 모래, 자갈이 깔린 하천 중·상류의 수초가 많은 곳에 서식한다. 탐진강 수계의 주변 하천에만 제한적으로 분포한다.



부안종개 멸종위기 야생생물 II급
유속이 완만하여 맑고 수심이 낮으며 바위, 자갈, 모래가 많은 바닥에 서식한다. 한반도 고유종이며 전라북도 부안군의 백천에만 제한적으로 분포한다.



여울목 멸종위기 야생생물 II급
맑고 수심이 풍부하여 수심이 낮은 하천의 상류에 서식한다. 한강과 낙동강 상류 지역에 제한적으로 분포한다.

우리나라에는 총 17목 39과 220여 종의 담수어류가 발견되어 기록되어 있으며,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 야생생물 I급 종은 감돌고기, 고치동자개, 남방동사리, 모래주사, 미호종개, 일목새코미꾸리, 여울목, 임실납자루, 흡수수치, 통사리, 흰수마자 11종이다. II급 종은 가늌돌고기, 가시고기, 꺾지개, 꾸구리, 다목장어, 뿔상어, 목납자루, 백조어, 버들가지, 부안종개, 여울목 등 16종이다. 한반도 고유종은 각시붕어, 큰줄납자루, 참종고기, 점물개, 어름치, 참갈겨니, 왕종개, 남방종개, 동방종개, 북방종개, 눈동자개, 미유기, 통사리, 꺾지 등 66종으로 약 30%를 차지하고 있다.

곤충

2019년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 국가 생물종 목록은 곤충강을 포함하는 외구상강과 북쪽이강, 낮벌이강 및 좀벌이강을 포함하는 내구상강으로 이루어진 육각아문에 총 588과 6,724속 18,092종을 한반도 산으로 기록하고 있다. 하지만, 북한 지역에 서식하는 다수의 곤충류에 관한 사항은 과거의 기록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며, 최근의 사례 연구에 의하면 일본산으로 알려진 종수와 비등할 것으로 추론되는 등 상당한 수의 한반도산 곤충은 여전히 미지의 상태로 남겨져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장수하늘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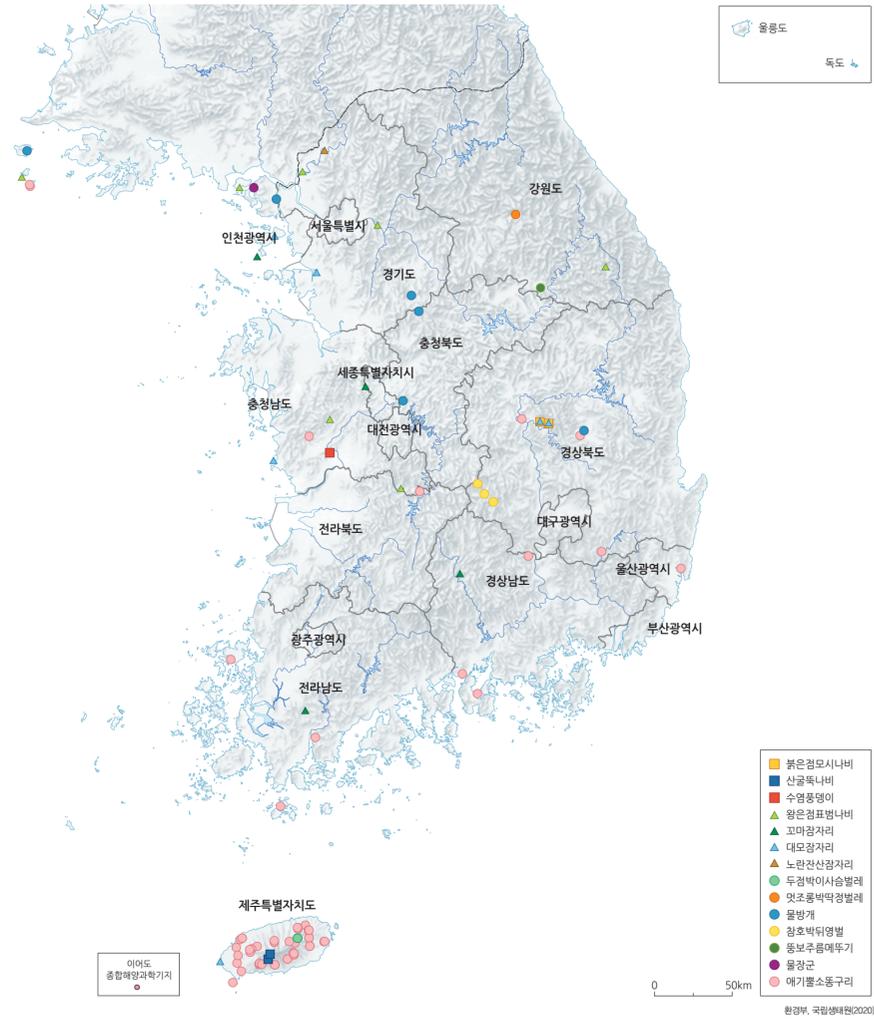
물장군

기록된 육각아문 중 딱정벌레목(4,520종), 나비목(4,019종), 벌목(3,806종)의 종 다양성이 높으며, 이들은 전체 기록 종수 대비 약 68%를 차지한다. 그 다음으로 파리목과 노린재목은 각각 2,226종, 2,140종이 알려져 있어 전체 육각아문의 약 24%를 차지하고 있다.

한반도는 동물 지리구 구북구에서 중국 동북부, 극동러시아, 한반도 및 일본 온대 지역을 포함하여 보다 특화된 만주아구의 중심에 있으며, 기록된 육각아문의 한반도산 종들은 주로 만주아구의 특이적 종들과 소수의 구북구 관통 분포 종 및 넓은 분포를 가지는 아열대구 종들의 북방 한계에 위치하는 종들로 이루어져 있다. 따라서 정확한 한반도산 종들의 종 다양성 연구는 만주아구에 분포하는 종들 사이의 면밀한 비교를 통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 야생생물 I급 곤충은 붉은점모시나비, 비단벌레, 산골뚝나비, 상제나비, 수염풍뎠이, 장수하늘소 6종이며, II급 종은 깊은산부전나비, 꼬마잠자리, 노란산산잠자리, 대모잠자리, 뚱보주름메뚜기, 물장군, 닳뚜니길앞잡이, 큰자색호랑꽃무지, 소뚱구리, 애기뿔소뚱구리, 두점박이사슴벌레, 멋조롱박딱정벌레, 창언조롱박딱정벌레, 물방개, 참호박뒤영벌, 쌍꼬리부전나비, 큰홍머점박이부전부전나비, 여름어리표범나비, 왕은점표범나비, 은줄팔랑나비의 20종이다. 이들 중 장수하늘소(218호), 산골뚝나비(458호) 및 비단벌레(496호)는 그 종 자체가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있다.

멸종위기 곤충



저서성 대형 무척추동물

멸종위기 저서성 대형 무척추동물 분포



저서성 대형 무척추동물은 육안으로 식별이 가능한 척추 없는 동물을 통칭하며, 편형동물문, 유선형동물문, 연체동물문, 환형동물문, 절지동물문 등을 대상으로 한다. 특히 절지동물문이 70% 이상 차지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 하루살이 및 잠자리 등 수서 곤충류의 종수와 개체 수가 가장 풍부하다.

한국의 담수에 서식하는 저서성 대형 무척추동물은 총 7문 13강 37목 146과 749종이며, 한반도 고유종은 95종이다. 이 중에서 환경부가 지정한 멸종위기 야생생물 I급은 귀이빨대칭이, 나팔고둥, 남방방개, 두드럭조개 4종이며, II급은 갯게, 검붉은수지맨드라미, 진홍나팔달산호, 기수갈고둥 등 31종이다.



염주알다슬기

우리나라 고유종으로 강원도 및 충청북도 등 중부 지방에 서식하며, 개체 수가 줄어들고 있어 환경부 멸종위기 야생생물 II급으로 지정하여 보호하고 있다. 패각에 염주 모양의 굽은 나뭇이 있다. 한지 하천 강 등 유수역의 유량이 풍부하고 유속이 빠른 여류에 서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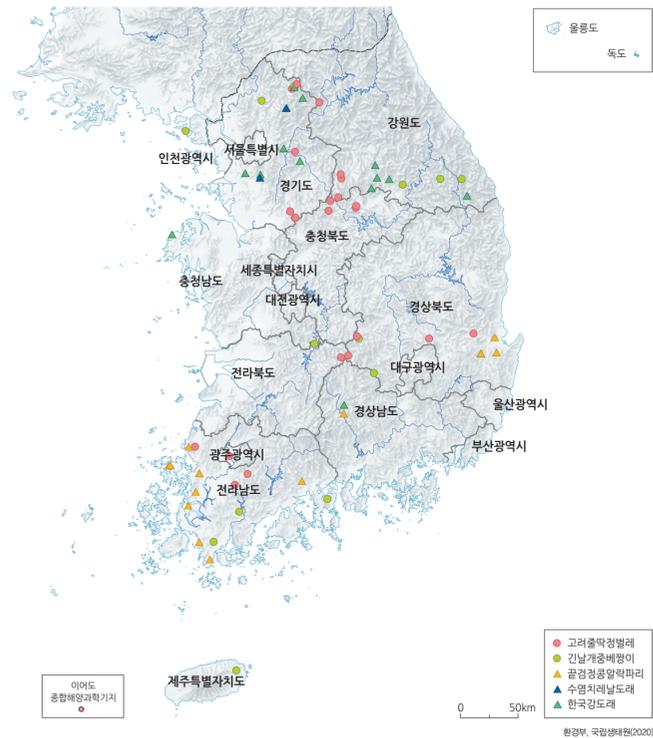
두드럭조개

금강과 보성강 등 일부 지역에서 서식하고 있으며, 개체 수가 줄어들고 있어 환경부 멸종위기 야생생물 I급으로 지정하여 보호하고 있다. 패각은 두껍고 오돌토돌한 돌기가 산재하며, 유량이 풍부한 강 중-상류의 거친 자갈밭, 모랫바닥에 서식한다.

한반도 고유종 곤충(1)



한반도 고유종 곤충(2)



귀이빨대칭이

멸종위기 야생생물 I급으로 식패과에 속하는 담수산 이매패이다. 우리나라 민물조개 중에서 가장 크다.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등의 큰 하천과 호수, 농수로, 늪지, 저수지의 잔류 바닥에서 주로 서식하며, 사식 수심은 0.2~2m 범위이다. 패각 뒤쪽 등면에 높고 돌출한 민살의 날개 구조물이 특징이다. 낙동강에서 한때 진주 양식에 이용되었지만 하상의 변화, 난획, 속주 어종의 감소 등으로 감소하였다.



나팔고둥

멸종위기 야생생물 I급으로 수염고둥과에 속하는 복족류이다. 우리나라에는 경상도와 제주도 연안에 주로 분포하며 고둥류 가운데 가장 크다. 패각은 매우 단단하고 두꺼우며, 패각 표면에 황백색 바탕에 적갈색 무늬가 불규칙하게 퍼져 있다. 수심 10~200m 사이 해역에 분포하고 암반이나 자갈이 깔린 바닥에서 서식한다. 불기사리를 주식으로 하는데 제주도에서는 빨강불기사리를 주로 잡아먹는다.



기수갈고둥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으로 지정된 갈고둥과의 복족류이다. 우리나라 서해와 남해 권역과 제주도 등에 분포한다. 민물과 바닷물이 만나는 기수역에 주로 분포하며 수심이 낮고 유속이 비교적 빠른 곳의 돌이나 자갈에 붙어 군집 생활을 한다.



대추귀고둥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으로 지정된 대추귀고둥과의 복족류이다. 서해안과 남해안의 갯전지가 발달한 염습지에 분포한다. 공기 호흡을 하는 유폐류로 기하학적으로 가지고 패로 호흡하는 육신패의 특성을 지닌과 동시에 기수역에서 염도에 내성을 지니고 있어 육신패와 해산패의 특징을 모두 가지고 있다.



붉은발발동게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으로 지정된 달랑게과의 갑각류이다. 우리나라의 서남해안 일대와 제주도에도 분포한다. 바다로 흘러드는 하구의 갯골, 갈대밭, 염습지 등에서 매우 드물게 서식한다. 몸 전체가 붉은 갈색으로 있으며, 발 주위로 흑갈색 선무늬가 있다. 갑각 등면은 불룩하고, 옆 가장자리에는 눈, 뒷니의 뒤쪽에 두꺼운 1개의 이모양 돌기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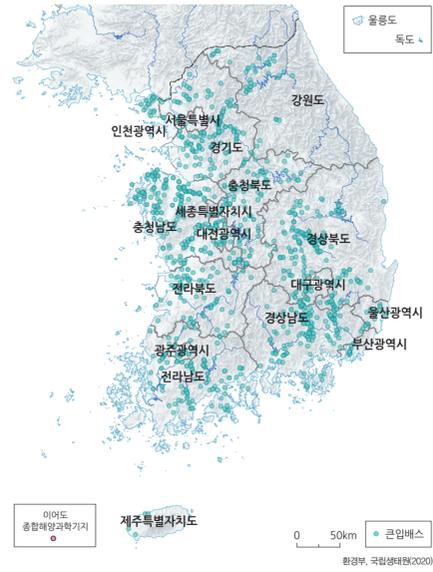


흰발농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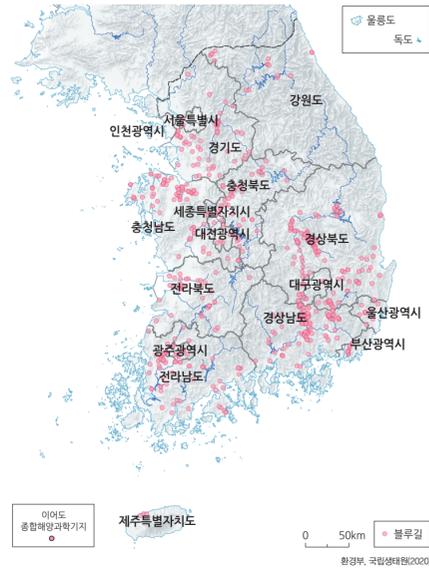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으로 지정된 달랑게과에 속하는 해산 갑각류이다. 우리나라 서-남해 조간대 상부의 모래가 섞인 진흙 바닥에 수직으로 구멍을 뚫는다. 수컷의 집게다리 한쪽은 다른 한쪽에 비해서 매우 크고 큰 집게다리의 손바닥 바깥 면은 매끈하고 과립이 없다. 큰 집게다리의 손은 전반적으로 흰색이다. 암컷의 집게다리는 작고 대칭이다.

생태계교란 동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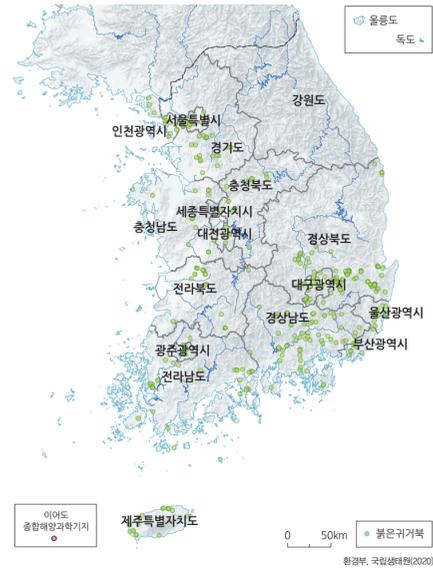
큰입배스 분포



블루길 분포



붉은귀거북 분포



황소개구리 분포



큰입배스
북아메리카 원산으로 우리나라에는 1973년 담수어 자원 조성 목적으로 도입하여 양식되었으며, 대형 덩어리 수자원 조성 목적으로 방류를 거듭하며 전국의 하천 및 수역으로 널리 확산되었다.



블루길
북아메리카 원산으로 우리나라에는 1969년 담수어 자원 조성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이후 대형 덩어리 방류되어 하천 수계를 따라 널리 확산되었다.



황소개구리
원산지는 아메리카로 미국 미시시피 강 유역이다. 우리나라에는 1970년 후반 예인용으로 들어왔으나, 큰 크기와 배설물 처리 등의 관리가 어려워짐에 따라 버려지거나 종교 행사인 '방생'에 이용되어 널리 확산되었다.



붉은귀거북
원산지는 아메리카로 미국 미시시피 강 유역이다. 우리나라에는 1971년 식용 목적으로 도입되어 농가에서 사육된 후 자연 생태계로 퍼졌다. 유럽, 아시아, 남아메리카 등에서도 관리 부실로 자연 생태계로 유출되었으며, 그 결과 우리나라를 포함한 여러 나라에서 생태계교란 생물로 관리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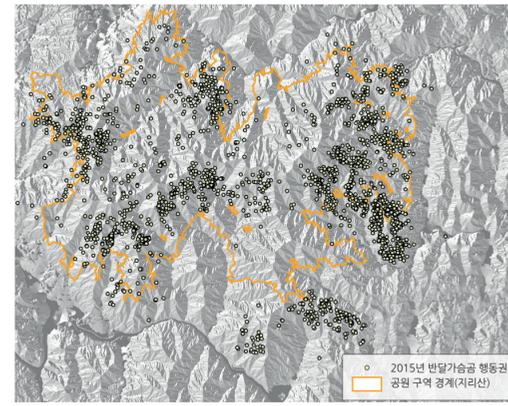
뉴트리아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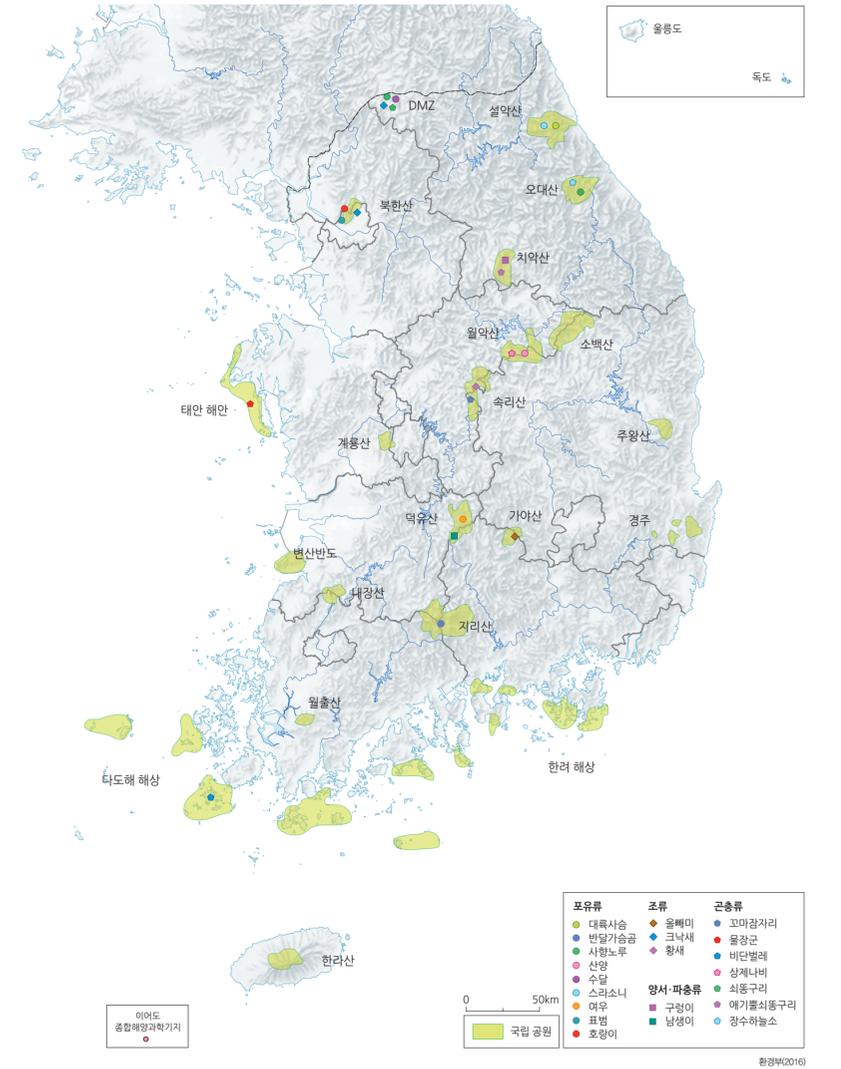
뉴트리아
1985년 7월 프랑스로부터 식량 자급과 모피 확보를 통한 경제학 이익 창출을 목적으로 최초 100 개체가 도입되었으나, 환경 적응 실패와 사육 기술 부족으로 전수 폐사하였다. 이후 1987년 불기러기를 통해 60개체가 증자용으로 도입되어 사육에 성공하면서 본격적인 보급이 이루어졌다.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복원 및 비무장지대 주변의 동물

반달가슴곰 행동권(2015년)



멸종위기 야생동물 복원지



복원이란 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 생물을 과거 본래의 상태로 회복시켜 야생에서 장기간 생존이 가능하도록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반달가슴곰, 사향노루, 황새, 갈매고기, 통사리, 풍란 등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복원 기술 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반달가슴곰과 황새는 종 복원 계획이 승인되어 현재 지리산과 한국교원대학교 황새생태연구원에서 복원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기타 많은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복원하기 위한 계획들이 제시되어 추진되고 있다.

반달가슴곰은 과거에는 설악산, 오대산, 지리산 등 산립 지대 전역에 걸쳐 서식하였다. 그러나 서식지 파괴와 남획으로 인해 개체 수가 급격히 감소하여 1982년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었다. 이후 멸종 위기에 놓인 반달가슴곰을 복원하려는 노력이 지속되어 2004년 6마리의 반달가슴곰을 러시아로부터 도입하여 지리산에 방사함으로써 한국 최초의 반달가슴곰 복원 계획이 시작되었다. 그리고 2005년 북한으로부터 8마리, 러시아로부터 6마리를 도입, 방사하여 2016년 44마리가 지리산에서 살고 있다. 특히 2015년 9월에는 인공적으로 방사하지 않은 3년생 반달가슴곰 수컷이 포획되어 자연 상태에서 증식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황새는 러시아 아무르 강 주변에 약 5,000여 마리만 남아 세계자연보존연맹에 의해 국제적 멸종위기종으로 지정되어 있다. 황새 복원 계획은 20년 이상 진행 중으로, 1996년 7월 러시아로부터 2마리(새끼), 독일로부터 2마리(수컷)를 도입하면서 복원이 시작되었다. 이후 2002년 4월 최초로 사육 상태에서 번식에 성공하였다. 2018년 기준 한국교원대학교 황새생태연구원에 85마리가 사육 중이고, 예산 황새 공원에 77마리가 서식하고 있다. 복원 센터에서는 증식된 황새를 자연 적응 훈련을 통해 자연에 방사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며, 황새의 과거 서식지에 이 동시켜 적응 훈련 후 방사를 추진할 예정이다.

비무장지대 주변의 동물 분포



비무장지대(DMZ) 일원은 일반인의 활동이 엄격히 금지된 지역으로, 다양한 자연 생태계가 보존되어 있어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다. 주로 포유류와 조류의 생물 다양성이 높고, 반달가슴곰, 사향노루, 산양, 수달 등 천연기념물과 멸종위기종의 서식 밀도가 높은 곳이기도 하다. 또한, 비무장지대 주변은 하천과 습지가 잘 발달되어

있어, 다양한 어종이 풍부한 개체 수를 유지하고 있다. 비무장지대 서부 지역은 주로 강 하구, 갯벌, 평야 지역으로, 계두루미나 저어새와 같은 습지성 조류들이 서식하고 있다. 중부 지역은 평야 지역으로 두루미의 월동지가 있으며, 동부 산악 지역에는 사향노루, 산양이 주로 서식하고 있다.

두루미는 강원도 철원, 경기도 연천, 파주, 인천광역시 강화 등의 지역으로 월동을 위해 도래한다. 사향노루와 산양은 바위가 많은 산악 지역인 동부 산악 지역에 서식하는데, 특히 사향노루는 우리나라에서는 강원도 화천과 양구 지역에서만 극소수 서식하고 있다.